

공간환경디자인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Design
for Better Built Environment

이상민 Lee, Sang Min

고은정 Ko, Eun Jeong

임유경 Lim, Yoo Kyoung

(a u r i

공간환경디자인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Design for Better Built Environment

지은이: 이상민, 고은정, 임유경

펴낸이: 은영태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385-2008-0005호, 인쇄: 2009년 2월 26일, 발행: 2008년 11월 30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 아크로타워 B동 301호

전화: 031-478-9600, 팩스: 031-478-9609

<http://www.auri.re.kr>

가격: 12,000원, ISBN: 978-89-93216-22-6

발간물번호: AURI-정책-2008-1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진

- ▮ 연구책임 이상민 · 부연구위원
- ▮ 연구진 고은정 · 연구원
 임유경 · 연구원
- ▮ 연구심의위원 유광흠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권영상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엄철호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박인석 · 명지대학교 교수
 박재길 ·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요약

이 연구는 품격있고 지속가능한 건축·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간환경디자인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에게 공간환경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출발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공간환경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검토하고, 국내외 관련 사례 분석을 통해 공간환경디자인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공무원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간환경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공간환경’과 ‘디자인’이란 단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공간환경디자인은 곧 ‘좋은 공간환경 만들기’를 뜻하며, 여기서 좋은 공간환경이란 ‘열린 접근과 자연스러운 연계(access & linkage)’, ‘안전성과 편안함(safe & comfort)’, ‘정체성있는 이미지(identity & image)’, ‘다양한 이용과 유연한 프로그램(use & program)’,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ownership & management)’이라는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총체적인 장소를 의미한다.

공간환경디자인의 적용대상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 공공공간, 경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간구조는 대지와 건축물이 만들어 내는 관계로, 공간환경디자인은 공간구조를 새로 구축하는 일 뿐 아니라 이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비롯하여 공간구조를 이루는 개별 요소들의 사이 공간까지 모두 포함한다. 건축기본법에서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이라 정의되고 있는 공공공간 또한 공간환경디자인의 대상이 된다. 특히 이 연구는 도시의 주요한 공공공간으로서 가로·공원·광장 외에도 도시 경관을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도시하부구조물(infrastructure)과 공간환경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인 디테일과 재료라는 측면을 포함하여 공간환경디자인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경관은 앞서 언급한 여러 요소들의 총합으로서 공간구조, 공공공간 등이 만들어내는 총체적 환경이다. 도시경관

은 그 대상의 범위에 따라 크게 시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경관과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등 특정한 지역의 경관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공간환경디자인은 이러한 적용대상에 대한 디자인 행위보다는 좋은 공간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접근방식과 그 가치에 더 중점을 둔다. 결국 공간환경디자인이란 건축물, 가로, 공원, 시설물 등 개별 대상물의 질적 향상이 아니라 이러한 대상물들이 어우러진 총체적인 장소를 좋은 공간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를 만드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다양한 주체의 유기적인 관계형성이 가능한 협력적 디자인(collaborative design),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등을 총체적으로 인식하여 장소를 만들기 위한 통합적 디자인(holistic design), 삶의 토대로서 생활공간을 만드는 프로세스 디자인(process design)이 공간환경디자인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자 중요한 특성이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열악한 공간환경 현실과 그 원인 진단을 통해 공간환경디자인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다음의 9가지로 정리하였다.

- 1) 장소의 가치 향상
- 2) 부분보다 전체
- 3) 발상의 전환
- 4) 통합적·총체적 접근
- 5) 적절한 전문가 활용
- 6) 적극적 주민참여
- 7) 다양한 주체의 협력

8) 점진적 사업 추진

9) 지속적 관심

위의 9가지 실천방향은 지자체 공무원들을 비롯하여 관련 실무자들이 공간환경 관련 사업을 계획하거나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할 원칙이 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협력적 디자인, 프로세스 디자인, 통합적 디자인으로서의 공간환경디자인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이념으로, 앞으로 이것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한 논의들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공간환경, 공간환경디자인, 협력적 디자인, 통합적 디자인, 프로세스 디자인

차례

II. 서론	2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6
1) 선행연구 현황	6
2)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2
 II. 공간환경디자인에 대한 이해	 16
1. 공간환경의 개념과 조건	16
1) 공간환경의 개념	16
2) 좋은 공간환경의 조건	17
2. 공간환경디자인이란 무엇인가	23
1) 공간환경디자인의 개념	23
2) 공간환경디자인의 가치	28
3. 공간환경디자인의 적용대상	32
1) 공간구조	33
2) 공공공간	44

3) 경관	57
III. 공간환경디자인의 실천방향과 사례	60
1. 우리나라 공간환경디자인의 현실과 원인	60
1) 우리나라 공간환경디자인의 현실	60
2) 열악한 공간환경디자인의 원인	63
2. 공간환경디자인의 9가지 실천방향과 사례	65
1) 장소의 가치 향상	65
2) 부분보다 전체	68
3) 발상의 전환	71
4) 통합적·총체적 접근	74
5) 적절한 전문가 활용	77
6) 적극적 주민참여	80
7) 다양한 주체의 협력	83
8) 점진적 사업 추진	86
9) 지속적 관심	89
IV. 결론 및 향후 과제	94

• 참고문헌	98
• Summary	108
• 부록. 영주시 공간환경디자인 관련 공무원 의견 조사	112

표 차례

표 1.1 각 시·도 도시디자인 조직 현황	4
표 1.2 해외 공간환경디자인 관련 선행연구 목록	9
표 1.3 국내 공간환경디자인 관련 선행연구 목록	11
표 1.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3

그림 차례

그림 1.1 우리나라의 열악한 공간환경	3
그림 2.1 좋은 공간환경의 조건	21
그림 2.2 공간환경디자인의 개념 정립	25
그림 2.3 공간환경디자인의 가치	30
그림 2.4 건축기본법에 기초한 공간환경의 적용대상	32
그림 2.5 공간환경디자인의 적용대상-공간구조	33
그림 2.6 서울시 관악구 난곡지구 재개발 전후 모습	34
그림 2.7 북촌 한옥등록 및 개보수현황	35
그림 2.8 북촌의 건축유형	35
그림 2.9 파리시 포브르 생탄트완느(Faubourg St. Antoine)지역	35
그림 2.10 파리시 포브르 생탄트완느 지역 일반토지이용계획과 특별토지이용계획 적용에 따른 건축유형 비교	35
그림 2.11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주상복합단지 입구와 인근 아파트 단지주변 보도	36
그림 2.12 정비사업 전후 아파트 모습과 평면상 변화	37
그림 2.13 안양시청 주요건물 배치	38
그림 2.14 안양시청 전경	38
그림 2.15 런던시 트라팔가 광장 평면	39

그림 2.16 런던시 도심과 트라팔가 광장	39
그림 2.17 런던시 트라팔가 광장에서 내셔널갤러리를 바라본 모습	39
그림 2.18 런던시 내셔널갤러리 전면 보행자 가로	39
그림 2.1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변 건물배치	40
그림 2.2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전경	40
그림 2.2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변부	40
그림 2.22 안양시청 부근 상업지역 이면도로	40
그림 2.23 캐나다 밴쿠버시 폴스 크릭 노스 (False Creek North) 지역	41
그림 2.24 캐나다 밴쿠버시 조르지아 고가도로(Georgia Viaduct) 주변	41
그림 2.25 파리지 파리리브고슈(Paris Rive Gauche) 협의정비지구 내 마세나 구역 건 축코디네이터 크리스티앙 드 포잡박에 의한 볼륨 스터디	41
그림 2.26 대구시 동성로 부근 소규모 상가	42
그림 2.27 안양시 안양역 주변 소규모 상가	42
그림 2.28 안양역 부근 소규모 상가 밀집지	42
그림 2.29 안양시 안양역 부근 상업가로 보도	42
그림 2.30 파리리브고슈지구 툴비악구역 입면	43
그림 2.31 베르시지구 입면	43

그림 2.32 파리리브고슈 협의정비지구 전경	43
그림 2.33 베르시 협의정비지구 전경	43
그림 2.34 공간환경디자인의 적용대상-공공공간	44
그림 2.35 안양시 국토연구원 주변 보도	45
그림 2.36 안양시청 북측 보행자공간 현황	45
그림 2.37 안양시청 서측 보행자공간 현황	45
그림 2.38 인천시 부평구 문화의 거리	46
그림 2.39 대구시 동성로 공공디자인개선사업	46
그림 2.40 파리시 샹젤리제 거리	46
그림 2.41 런던시 캔싱턴 거리	46
그림 2.42 서울숲광장	47
그림 2.43 울산대공원	47
그림 2.44 시애틀시 올림픽 조각 공원(Olympic Sculpture Park)	48
그림 2.45 파리 18구 꾸르 뒤 마룩	48
그림 2.46 서울광장	49
그림 2.47 승례문광장	49
그림 2.48 벨기에 메헬렌(Mechelen)시 그로트 마르크트 광장(Grote markt) 조성	50

그림 2.49 벨기에 메헬렌시 그로트 마르크트 광장	50
그림 2.50 파리시 시청앞 광장(겨울)	50
그림 2.51 파리시 시청앞 광장(여름)	50
그림 2.52 서울시 광진구 건대입구역 부근	51
그림 2.53 서울시 잠수교 복단	51
그림 2.54 무주군 남대천교 전경	52
그림 2.55 무주군 남대천교 위 조형물	52
그림 2.56 네덜란드 로테르담 에라스무스교	52
그림 2.57 네덜란드 헤이그 트램역+주차장	52
그림 2.58 네덜란드 A8erna 프로젝트	52
그림 2.59 안양시 안양역 부근 육교와 시설물	53
그림 2.60 안양시 국토연구원사거리 시설물	53
그림 2.61 안양시 롯데백화점 앞 가로시설물	54
그림 2.62 무주군 부남면 버스정류장	54
그림 2.63 리옹시 공공시설물디자인 국제 현상공모에 당선된 장미셸빌모트가 디자인한 가로등에 대한 10개의 모델	54
그림 2.64 안양시청 부근 보도 디테일	55

그림 2.65	평촌 문화의 거리 이면도로	55
그림 2.66	무주군 남대천교 보도 포장	56
그림 2.67	서울시 중구 정동길 보도 블록	56
그림 2.68	캐나다 밴쿠버시 보도 · 녹지 · 식재 경계 부분 디테일	56
그림 2.69	미국 포틀랜드 파이어니어 코트하우스 스퀘어	56
그림 2.70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일대 전경	57
그림 2.71	안양1번가 가로경관	57
그림 2.72	안양시 동안구 평촌 문화의 거리 경관	57
그림 2.73	파리시 지역도시계획(PLU) 상 후조 적용지역	58
그림 2.74	파리시 지역도시계획(PLU) 상 대상지역별 높이제한	58
그림 2.75	인천시 송도 국제업무지구 경관존과 지침도	58
그림 3.1	보행권이 무시된 공간환경디자인	61
그림 3.2	지역성이 없는 획일화된 공간환경디자인	61
그림 3.3	일상생활과 밀접하지 못한 공간환경디자인	62
그림 3.4	고립된 입지조건으로 이용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공건축물	62
그림 3.5	관리가 고려되지 않은 공간환경디자인	62
그림 3.6	열악한 공간환경디자인의 원인과 실천방향	63

그림 3.7 공간환경디자인의 실천방향	64
그림 3.8 코페하겐의 뉘하운 항구	65
그림 3.9 하늘정원 모습	66
그림 3.10 벽화 꾸미기	66
그림 3.11 하늘정원에서 열린 국수음악회	66
그림 3.12 남부시장 그림지도	66
그림 3.13 한평공원 대상지	67
그림 3.14 한평공원 조성 모습	67
그림 3.15 한평공원 현재 모습	67
그림 3.16 자전거 보관소	67
그림 3.17 강서구 마스터플랜	68
그림 3.18 영주시 공간환경디자인 추진과정	69
그림 3.19 통합 마스터플랜 개념설정	69
그림 3.20 리옹시 떼로 광장(Place de Terreaux)	70
그림 3.21 리옹시 SCOT	70
그림 3.22 접근성 향상 구상도	70
그림 3.23 도시이동계획상 공공공간체계 구상도	70

그림 3.24 리옹1구의 지속가능한 개발 기본구상도	70
그림 3.25 선유도 공원	71
그림 3.26 플랜 생드니	72
그림 3.27 프로젝트 개념도	72
그림 3.28 (좌)1960년대 개통된 고속도로A1, (우)인공대지 위에 조성된 공원	72
그림 3.29 전체 사업에 대한 3차원 계획도면	73
그림 3.30 사업 전 모습	73
그림 3.31 사업 후 청소년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습	73
그림 3.32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74
그림 3.33 금산 다락원 전경	75
그림 3.34 생명의 집(공연장) 내부 홀 모습	75
그림 3.35 노인의 집, 여성의 집 등을 잇는 중앙 내부가로 모습	75
그림 3.36 포부르 생드니 지역에 대한 통합적 계획도	76
그림 3.37 포부르 생드니 지역 자동차순환체계	76
그림 3.38 포부르 생드니 지역 사업 후 모습	76
그림 3.39 민간 전문가	77
그림 3.40 무주군청	78

그림 3.41 부남면 주민자치센터	78
그림 3.42 등나무운동장	78
그림 3.43 곤충박물관	78
그림 3.44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사업추진조직	79
그림 3.45 구마모토 어업단속반 사무소	79
그림 3.46 다마나 전망관	79
그림 3.47 구마모토 기타 경찰서	79
그림 3.48 성미산 마을축제	80
그림 3.49 성서 한평공원	81
그림 3.50 골목길 축제	81
그림 3.51 한평공원 만들기를 위한 디자인 워크숍	81
그림 3.52 사우스킬번 프로젝트 모델 2005	82
그림 3.53 공사가 진행 중인 주택	82
그림 3.54 레빗 번스타인의 투시도	82
그림 3.55 노원구청 공무원들의 사회창안 제안	83
그림 3.56 노유거리 모습	84
그림 3.57 노유거리 가꾸기 도시설계 기획위원회 구성	84

그림 3.58 광복로 가로정비 전후	85
그림 3.59 광복로 시범가로 추진위원회 구성	85
그림 3.60 ‘프로젝트 쌀’ 의 마산 부림시장 프로젝트	86
그림 3.61 광주 푸른길	87
그림 3.62 간판 정비를 위한 그리드 계획	88
그림 3.63 간판 정비 모습	88
그림 3.64 대구 신천 무태교 주변 생태공원	89
그림 3.65 신천생태공원 조성 지역	90
그림 3.66 담장 허물기에 의한 골목공원 조성	90
그림 3.67 폐한옥을 개조한 마을 국악원	90
그림 3.68 담장 벽화	90
그림 3.69 마루노우치 나카도리 모습	91
그림 3.70 공간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활동	91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aur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이 시대의 도시 경쟁력은 국가차원의 경쟁력에서 중요한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사회, 디지털사회, 지식산업사회에서는 국가 보다는 도시 차원의 경쟁력이 강조된다. 이러한 도시 경쟁력은 품격 있고, 아름다우며 안전하고 편리한 세계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¹⁾ 이것은 도시를 이루는 건축물과 공간환경 등은 물론이고 도시의 삶의 질과 관련한 총체적인 개선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때 보다는 도시에서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변화를 겪어 왔다. 이미 현대사회는 가격과 품질의 시대를 지나 혁신적인 디자인이 경쟁력의 핵심으로 주목받는 시대이며, 상업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디자인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디자인 분야에서 경쟁력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으나 상대적으로 건축물이나 도시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디자인의 수준은 그렇지 못하다. 다음의 글은 우리의 열악한 공간환경을 세밀하게 설명해준다.

급격한 도시화의 외증에서 몸집을 불린 도시는 누더기 모양을 하고 있다. 도시 내의 빈 땅은 키를 맞춘 성냥갑 같은 아파트로 빼곡하게 채워져 왔으며, 아파트들은 여전히 재개발,

1) 이희정외, “디자인과 도시경쟁력-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을 중심으로-”, 『도시정보』, 2008, N.312(3), p.3.

재건축의 이름으로 도시의 곳곳을 기세 좋게 덮쳐나가고 있다....(중략)... 길은 이미 차에게 내어준 지 오래고, 그나마 남아 있는 보도도 온갖 가로시설물들이 어지럽게 차지하고 있어 걷기 위한 공간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다. 상점들은 저마다 길가로 얼굴을 내밀기 위해 보도를 무단으로 점유하기 일쑤고, 간판으로 뒤덮인 건물은 제 얼굴을 찾기 어려울 지경이다. 모든 것이 되바라지고 들떠 있으며 거칠고 조잡하다. 길이며 건물은 새것으로 번쩍거리지만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건처럼 금방 깨질 것 같아 불안하다. 생동감은 있으나 거칠고 소란스럽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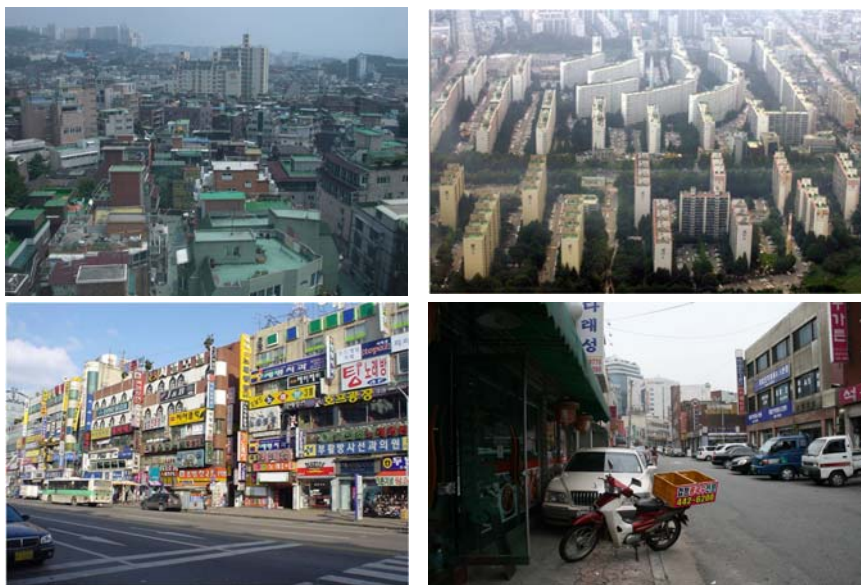


그림 1.1 우리나라의 열악한 공간환경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새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건축물을 비롯한 공간환경을 아름답고 편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디자인 정책’ 및 ‘창조적 디자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2007년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생활공간적, 사회적, 문화적 공공성을 증대시키고, 건축·도시환경의 문화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건축기본법’이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품격과 품질 높은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대두,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등과 함께 여러 지자체에서는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해 공공디자인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가로시설물이나 간판 등과 같이 요소적, 개별적 측면에 국한되어 근본적인 도시환경 개선에서는 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또한 최근 각 지자체마다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조직이 신설되거나 팀에

2) 온영태, “공공디자인과 지속가능한 공간환경만들기”, 『건축과 사회』, 2008, V.11, p.25.

서 과로 독립하는 등 도시 공간환경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 관련 부서들 간 원활하지 못한 협의체계 등 해결해야 할 많은 숙제들을 가지고 있다.

표 1.1 각 시도 도시디자인 조직 현황(2008. 3 기준)(자료 : 오민근, 2008)

구분		조직 및 구성	구분		조직 및 구성
서울특별시	본청	1본부 3담당 13팀	경기도		1본부 2팀
	자치구	2과 7팀(강동구)	강원도		1본부 1담당
		1과 4팀(노원, 성북, 중랑, 광진, 중구)	제주도		1담당
		1실 3팀(강남구)	일 반 시	강릉시	1과 5담당
		1실 3팀(성북구)		김해시	1과 3팀
대전광역시	본청	3담당		구미시	1과 3담당
	자치구	1팀(중구, 대덕구)		원주시	1과 3담당
인천광역시	본청	2과 7담당		안동시	1과 6담당
	자치구	1과 5팀(연수구)		포항시	1팀 2담당
		1과 4팀(계양구)		춘천시	1과 3담당
		1과 3팀(서구, 동구)		동해시	1과 3담당
부산광역시		1과 3팀		남양주시	1팀
대구광역시		1팀 3담당		고양시	1팀
광주광역시		3담당			
울산광역시		1담당			

따라서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주민생활에 밀착한 공간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 지자체 차원에서 적합한 방향 설정과 전략이 필요하고,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간환경과 관련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각 지자체에서 공간환경의 통합적 계획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품격 있고 지속가능한 건축·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에게 좋은 공간환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또한 좋은 공간환경을 위해서는 디자인 개선뿐 아니라 디자인을 조성하는 방식이나 그 시스템을 바꾸는 일련의 행위들이 모두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 공간환경디자인의 개념과 그 적용대상을 설정하고, 공간환경디자인의 실천을 위한 기본방향을 국내외 관련 사례들과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추후 이 연구의 결과는 좀 더 읽기 쉽도록 재편집되어 관련 실무자들, 특히 행정공무원들이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공간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1) 연구 범위

이 연구에서 주된 연구 대상은 도시의 공간환경으로, 여기서 말하는 공간환경의 개념은 건축기본법³⁾ 제3조2항에 근거하여 도시와 지역에 속하는 건축물이 함께 이루어내는 공간구조, 그 구조를 형성하는 사람의 행위와 목적, 기능 및 생활, 공간구조의 사이를 연결하는 공공공간, 건축물이 이루는 경관적 특성 등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공간환경디자인이라는 개념은 건축물, 가로, 공원, 광장 등 개별적 대상물의 질적 향상보다는 이러한 대상물들이 어우러진 총체적인 장소로서 좋은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한 접근방식과 태도,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시스템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접근하려 한다.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는 2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는 필요성과 개념, 범위 등 공간환경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검토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방향의 제시를 내용적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의 내용은 공간환경디자인의 이해에 관한 부분(제2장)과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통해 공간환경디자인의 실천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제3장)으로 구성된다.

2) 연구 방법

□ 문헌조사

마을만들기, 커뮤니티 디자인, 공공디자인, 경관계획,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등 도시의 공간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진행된 선행연구, 사업지원을 위해 제작된 교육 자료나 업무매뉴얼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다. 동시에 영국 CABE, 미국 PPS, AIA 등에서 도시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제작한

3) 기존의 건축법이 개별 건축물에 대해서 대지구조나 설비기준 등에 관한 최저기준을 규정하였다면, 건축기본법은 그 범위를 건축물과 공간환경으로 설정하고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품격있는 공간환경의 조성을 통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건축기본법은 국민의 안전·건강 및 복지를 위한 생활공간 조성, 사회 요구의 수용 및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 조성, 지역성과 역사성을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 창조와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여러 가지 정책지침서와 가이드북, 교육 또는 홍보 목적으로 다양한 사례들을 수집한 자료집 등을 검토한다.

□ 국내외 사례조사

공간환경디자인의 바람직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 지자체에서 도시 공간환경 향상을 위해 진행되었던 사업 또는 현재 진행 과정 중에 있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과정 등을 분석하여 공간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서울 광진구, 영주시, 무주군, 금산시, 영월군, 부산시 등 관련 사례들에 대해서 현지답사와 관련자 면담을 실시한다. 또한 도시 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을 시도한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공간환경디자인의 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도시, 건축, 조경,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교수, 실무전문가, 행정공무원 등)들과의 자문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공간환경의 현실과 문제, 공간환경디자인의 구체적인 실천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 행정 및 실무담당자 의견 수렴

공간환경디자인의 개념과 실천방향 등 공간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간단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관련 행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3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현황

공간환경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도시의 공간환경 또는 사람들의 삶을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현대 도시계획이 도시의 양적 팽창에 치중하던 개발 중심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살고싶은도시(livability)’ 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와 같은 말들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도시에서 디자인이 단순히 미적 차원에 머무

르는 것이 아니라 도시 환경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질 높은 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좋은 도시공간, 좋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이 제안되고 있다.

(1) 해외 공간환경디자인 관련 선행연구

□ 스코틀랜드

2001년 『장소만들기(Designing Places)』 발간을 통해 디자인 중심의 장소만들기 정책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계획지침서(PAN : Planning Advice Notes) 시리즈를 발간하였다.

□ 영국

건축가인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gers)가 이끄는 UTF(Urban Task Force)는 1999년 『도시르네상스를 향하여(Towards an Urban Renaissance)』를 발간하여 21세기 영국의 도시 아젠다를 제시하였다. 이후 공간과 연관된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디자인 자문 및 교육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CABE를 설립하였다. CABE에서는 다양한 자료들을 출간하여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도시계획가, 공무원,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 『디자인에 의하여(By Design)』는 계획수립 시스템에서의 도시디자인 절차 개선을 위한 제언으로 도시디자인에 대한 보다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CABE Space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공공공간의 질적 향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당신의 공간입니다(It's your space)”라는 캠페인은 “더 나은 공공공간을 위한 매니페스토(Manifesto for Better Public Spaces)⁴⁾”를 통해 좋은 공공공간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공공간의 향상을 위해 시민들이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방식의 행동들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300개가 넘는 영국의 국가 및 지역 단체들이 이 매니페스토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⁵⁾



4) CABE, “Manifesto for Better Public Spaces”, 2004.

5) CABE Space의 매니페스토

- 디자인이 우수한 공원, 가로 등의 공공공간을 조성하고 가꾸는 일은 국가와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우선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우리의 공공공간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우리의 도시, 마을, 교외의 생명력에 있어서 좋은 디자인이 가지는 중요성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하며, 디자이너, 계획가, 관리자 모두가 양질의 공공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잉글리쉬 파트너십(English Partnerships)은 지방정부와 담당 공무원들이 계획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도시설계의 핵심계획요소와 기본원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 『도시설계 개론(Urban Design Compendium)』을 발간하였다. 이 책은 도시설계 프로젝트를 지역적 컨텍스트를 분석하는 시작단계에서부터 도시골격 및 연결성 만들기, 세부계획, 집행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진행과정을 나누고, 각 단계별로 중요한 고려사항과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도시설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잉글리쉬 파트너십이 그동안 추진해온 다양한 개발사례 소개와 함께 도시설계의 핵심요소를 제시하였다.⁶⁾

□ 미국

미국은 미국건축가협회(AIA)의 주도 하에 살고싶은 커뮤니티 디자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살고싶은 도시(Livability 101)』이라는 선언적 발간물을 통해 살고싶은 도시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였으며,⁷⁾ 『디자인에 의한 커뮤니티(Communities by Design)』에서 커뮤니티 환경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본지침을 제시하였다.



또한 『건축가는 어떻게 살기좋은 커뮤니티를 위한 활동가가 될 수 있는가(How Architects Can Become Advocates for Livable Community)』에서 공간환경의 디자이너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간의 많은 이슈들을 다루어야 하는 건축가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건축가가 커뮤니티의 활동가가 되어 지역 주민들을 이끌어 나가거나 혹은 주민들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제안하였다.⁸⁾

이 외 공공공간 개선을 위한 민간단체인 PPS(Project for Public Spaces)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 공원과 공공공간의 관리가 필수적인 커뮤니티 서비스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한다.
- 외부 공간의 위험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많이 열고, 사람들이 위험의 인식보다는 재미있는 공간이 제공하는 이점에 더 가치를 두는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 사람들을 활동적이게 만들고 질병으로부터 회복시켜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양질의 공원과 공공공간이 갖는 역할이 국가 및 지역의 건강 정책에 반영되도록 한다.
- 6) 사람을 위한 장소, 장소성 창출하기, 연결성 강화하기, 자연환경과의 조화, 복합용도와 형태의 다양화, 사업성 확보 및 유지관리,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설계 등을 7가지 도시설계의 핵심요소로 제시하였다.
- 7) '살고싶은 도시'를 결정짓는 인자로 장소성, 복합개발, 효율적 교통체계, 안전한 도로환경, 시민건강증진 및 커뮤니티디자인, 공공안전, 지속가능한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 8) - 디자인에 관한 워크숍을 추진하라.
 - 특정 주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라.
 -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의견을 전달하라.
 -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라.
 - 기존의 커뮤니티 설계 지원 프로그램과 협력하라.

서는 지난 30여 년 간의 공공공간 조성 및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장소를 변화시킬 것인가-성공적인 공공공간을 만드는 핸드북(How to Turn a Place Around-A Handbook for Creating Successful Public Spaces)』이라는 제목의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공공공간의 중요성, 공공공간 평가 방법, 장소만들기를 위한 11가지 원칙 등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미국 조달청(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이 연방정부 시설과 그 주변의 공공공간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제작한 참고자료 『연방정부 공공공간의 만들기(Achieving Great Federal Public Spaces: A Property Manager's Guide)』에서는 공공공간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원칙으로 PPS가 제시한 11가지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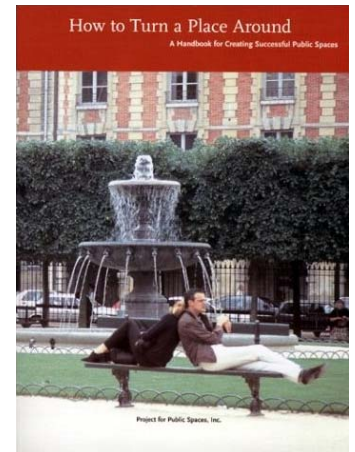


표 1.2 해외 공간환경디자인 관련 선행연구 목록

국가	발간물(연도)	발행처	주요목적과 내용
스코틀랜드	Designing Places(2001)	Scottish Executive (스코틀랜드 행정부)	장소만들기에 대한 첫 번째 정책설명 개발과 재개발에 있어 디자인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계획시스템 제안 PAN 시리즈를 위한 기초 제시
	PAN Design Statements (2003)	Scottish Executive Development Department	디자인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Design Statements의 정의, 필요성, 수립주체, 작성양식, 적용원칙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
영국	Towards an Urban Renaissance (1999)	Urban Task Force	21세기 영국 도시 아젠다 정립 도시계획과 건축의 질적 향상에 집중
	By Design : Urban Design in The Planning System(2000)	CABE	도시계획의 개념 전환 개발관련 공무원과 시의원들에게 도시디자인에 관한 보다 높은 기준 제시
	Manifesto for Better Public Spaces(2004)	CABE Space	좋은 공공공간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강조 공공공간의 향상에 커뮤니티 참여 촉구
	Urban Design Compendium (2000)	English Partnership	지방정부와 담당 공무원들이 계획 과정에서 검토해야 하는 도시설계의 핵심 계획요소와 기본원칙 제시
미국	Livability 101 (2005)	AIA	‘살고싶은 도시’에 대한 개념 정의

- 9) - 커뮤니티가 전문가이다. - 디자인이 아닌 장소를 창조하는 것이다.
 - 혼자서는 할 수 없다. - 불가능한 것은 없다.
 - 관찰하는 것만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비전을 수립하라. -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 공간을 적절히 배치하라. -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Communities by Design (2001)		커뮤니티 환경디자인의 지침 제시 '살고싶은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과 소개 살고싶은 커뮤니티 만들기를 위한 수단 커뮤니티 디자인의 경제적 효과 설명
How Architects Can Become Advocates for Livable Community (2005)		공간환경의 디자이너로서 건축가가 지역 주민들을 이끌어 나가거나 혹은 주민들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전략 제시
How to Turn a Place Around (2005)	PPS	성공적인 공공공간 만들기를 위한 가이드북 도시에서 장소만들기의 중요성, 장소만들기를 위한 원칙, 공공공간 평가방법

(2) 국내 공간환경디자인 관련 선행연구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경관, 공공디자인,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관련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공간환경을 만드는 주체인 지자체 공무원과 참여 시민을 위한 정책소개서와 매뉴얼이 발간되었다.

2007년부터 시행된 경관법과 그에 따른 경관계획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도시설계학회는 『도시설계전략으로서의 도시경관계획』을 발간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구 문화관광부)에서는 이제까지 시행된 지자체의 도시경관사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현 상황에 적합한 경관문화형성 사업의 매뉴얼로 『주민과 함께 도시경관만들기 : 규제에서 참여로 그리고 문화로』를 작성하였다. 이 매뉴얼은 특히 사업의 주체인 행정가, 주민, 전문가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경관문화형성 사업의 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각 수행 과정에서 각 주체의 역할을 규정하였다.

최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공공디자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디자인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공공디자인의 개념과 범위를 규정하고, 현행의 법과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정부 차원에서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정책의 추진방향과 사업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은 『지자체 디자인행정 매뉴얼-디자인 행정조직구축을 중심으로-』를 발간하여 디자인 행정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은 최근 몇 년 동안 관련된 연구와 함께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먼저 2005년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추진방안 연구』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에 대한 사회적 노력이 왜 필요한지, 개념은 무엇인지,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연구의 대상은

마을단위에 국한하지 않고 거버넌스 시대의 마을이 모인 도시와 지역을 시민 생활자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재조명하여 삶의 질을 중시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후 후속 연구들로 국내외 살고싶은 도시의 성공사례 분석을 통하여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개념을 도출하고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사업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의 틀을 구성하기 위해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국내외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한국형 시민참여 도시 만들기 개념을 정립하고 그 추진전략 및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례편』이라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외에 주민참여형 마을단위의 기본계획 실현을 위한 기초연구로,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례연구』가 있다. 이것은 마을단위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여기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적 지원체계를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사례들을 폭넓게 조사하여 마을 만들기의 현 수준 및 다양성, 가능성을 파악하고, 마을 만들기 유형별 대표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서울시가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 일들을 제시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의 균형발전지원본부에서는 2006년 『‘살기좋은 지역’ 및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개념정립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의 살기좋은 지역에 대한 개념의 진화과정을 분석하고 외국의 관련 동향을 살펴, 현재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의 개념을 분석하고 정립함으로써 앞으로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려 하였다.

표 1.3 국내 공간환경디자인 관련 선행연구 목록

분야	발간물	발행처	주요목적과 내용
경관	주민과 함께 도시경관만들기 : 규제에서 참여로 그리고 문화로(2006)	문화관광부	경관문화형성에서 행정, 전문가, 주민 등 각 주체별 역할에 대해 이해를 돕고 주민참여에 의한 경관만들기의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
	도시설계전략으로서의 도시경관계획 (2007)	한국 도시 설계 학회	관련 전문가, 공무원, 건축가, 관련실무자,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도시경관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계획수립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2006)	문화관광부	공공디자인진흥법 제정을 위해 현황 파악과 공공디자인에 대해 이해를 통해 향후 정책 방향 제시
	지자체 디자인행정 매뉴얼-디자인 행정조직 구축을 중심으로-(2006)	한국 디자인 진흥원	디자인행정 개념과 도입의 필요성 제시 디자인행정조직 구축, 디자인계획 수립, 디자인사업 시행 및 관련제도 정비 등 전반적인 디자인 행정에 대해 이해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방안 연구 (2008)	문화 관광부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방안 제안 도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법·제도 개선
살고 싶은 도시만 들기/ 지역만 들기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추진방안 연구 (2005)	국토 연구원	사회단체나 관련전문가 등을 포함한 시민사회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국가 및 지자체가 추구할 정책방향과 의제 제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국내외 사례연구 (2006)		국내외 도시의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개념을 도출 앞으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의 틀 구성과 바람직한 추진방향 제시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례편(2007)		한국형 시민참여 도시만들기의 개념을 정립하고 추진전략 및 제도화 방안을 마련
	살고싶은 도시만들기(II) :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2007)		2005년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추진방안 연구의 후속연구 구체적인 정비기법과 법제도 개선방안 논의
	'살기좋은 지역' 및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개념정립 연구 (2006)	균형 발전 지원 본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개념 분석 및 정립 앞으로 사업의 진행방향 제시

2)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품격있고 지속가능한 좋은 공간환경의 조성을 위해 경관, 공공디자인,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커뮤니티 디자인 등 도시의 공간환경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모두 포괄하면서, 총체적인 시각, 협력적인 관계, 과정중심적 접근을 중시하는 개념으로서 공간환경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경관 사업, 공공디자인 사업,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와 같이 특정한 사업이나 도시설계, 조경, 건축 등 특정 분야에 국한시키지 않고 각 지자체에서 좋은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실천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관련 실무자, 특히 행정담당자들에게 이해시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표 1.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개요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례연구 •연구자(년도) : 정석 외(1999) •연구목적 : 주민참여형 마을단위의 기본계획 실현을 위한 기본 방향을 모색하고, 여기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적 지원체계를 연구하려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사례조사 •문헌조사 •마을 만들기 활동 직접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만들기 현황 및 가능성 파악 •마을 만들기 유형별 대표사례 심층 분석 •마을 만들기 조건 또는 성공요인 분석 •마을 만들기를 위한 서울시 실천방향 제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추진방안 연구 •연구자(년도) : 박재길 외(2005) •연구목적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에 대한 사회적 노력이 왜 필요한지, 개념은 무엇인지,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밝히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의 필요성 검토 •해외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동향 분석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추진정책의 기본모형 설정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과제와 추진방안 제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 공공디자인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자(년도) : 황기원 외(2006) •연구목적 : 공공디자인진흥법 제정을 위해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현황 파악을 통해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 •관련법 및 제도 검토 •국내외 사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해 •공공디자인 현황 분석 •해외사례분석 •공공디자인 정책 방향 및 공공디자인진흥법(안) 제시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 주민과 함께 도시경관 만들기 •연구자(년도) : 김도년 외(2006) •연구목적 : 도시 경관개선 과정과 각 주체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경관문화형성 사업의 선도적 모델을 마련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 •국내 사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문화형성 사업에 대한 이해 •사업 과정별 구체적인 내용 제시 •사업 수행시 각 주체의 역할, 시행 및 관리 방법 제시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 공간환경디자인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자(년도) : 이상민 외(2008) •연구목적 : 도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간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위해 공간환경디자인의 개념과 적용대상, 바람직한 실천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환경디자인의 개념 정립과 적용범위 검토 •공간환경디자인의 실천방향과 사례 제시

II.

공간환경디자인에 대한 이해

1. 공간환경의 개념과 조건
2. 공간환경디자인이란 무엇인가
3. 공간환경디자인의 적용대상

(auri

공간환경디자인에 대한 이해

1

공간환경의 개념과 조건

1) 공간환경(空間環境, Built Environment)의 개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공간환경은 영어로 Built Environment에 해당한다. Built Environment는 대규모의 도시 환경에서부터 개인적인 장소에 이르기까지 인간 활동을 위한 배경을 제공해주는 인공적인 주위 환경을 언급하는 것으로, 여기서 인공적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조성된 것에 반대의 의미이다. 또한 공간환경은 인공적인 환경의 설계, 관리, 이용과 그러한 환경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활동과의 관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는 여러 분야의 학제간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간환경의 분야는 일반적으로 학술적인 영역이 아닌 경제, 법, 경영, 설계, 기술 등의 개별 영역에서 발생하여 형성된 학제간 영역 또는 응용의 영역으로 이해되고 있다.¹⁰⁾ 즉 공간환경이란 특정 분야나 업역이라기 보다는 도시적 차원의 대규모 공간에서부터 건물 사이의 버려진 작은 공간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활동이 일어나는 인공 환경을

10) The phrase built environment refers to the man-made surroundings that provide the setting for human activity, ranging from the large-scale civic surroundings to the personal places. The term is also now widely used to describe the interdisciplinary field of study which addresses the design, management and use of these man-made surroundings and their relationship to the human activities which take place within them. The field is generally not regarded as an academic discipline in its own right, but as a "field of application" (or "interdiscipline") which draws upon the individual disciplines of economics, law, management, design and technology. (http://en.wikipedia.org/wiki/Built_environment)

지칭하여 사용하는 일반적인 명사이다. 이렇듯 공간환경이라는 단어 자체는 어떤 명확한 대상이나 영역을 지칭하기 보다는 여러 대상, 분야 또는 영역들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서로 공유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단어로써 사용되는 속성을 갖고 있다.

한편 2007년 제정된 건축기본법 제3조 2항에서는 “공간환경(空間環境)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면서 공간환경을 법적 용어로서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다. 여기서 “공간구조란 건축물이 놓이는 대지와 그 경계, 인접하는 도로와 다른 건물과의 배열, 크기, 형태 등이 거주자의 생활과 지역 지구의 조성에 미치는 집합적이고 입체적인 체계”(시행령 제2조)를 말하며, “공공공간(公共空間)이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법 제3조3항)을 의미한다. 또한 “경관”이란 경관법 제2조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공간환경이란 개념적으로는 사람의 활동이 일어나는 인공환경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공간환경을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와 공공공간, 그리고 이것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관”이라는 건축기본법의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¹¹⁾ 이에 따라 공간환경디자인의 구체적인 적용대상 또한 공간구조, 공공공간, 경관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2장 3절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2) 좋은 공간환경의 조건

이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공간구조, 공공공간, 경관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공간환경을 잘 만드는 것, 즉 좋은 공간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좋은 공간환경이란 무엇인가? 먼저 어떠한 조건들을 갖추어야만 좋은 공간환경이라 할 수 있는지 해외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좋은 공간환경의 조건을 제시하려 한다.

건축 및 도시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된 영국의 CABE(Commission for Architecture & Build Environment)는 공간과 연관된 보다 구체적인 정책 및 실천방안의 수립과 이와 관련된 디자인 자문과 교육을 주

11) 건축기본법이 그 적용 범위를 개별건축물과 공간환경, 즉 주변의 공간구조 및 경관으로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것은 건축의 품격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별건축물이 아닌 건축물과 이를 둘러싼 주변 공간환경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관해 왔다. CABE의 공공공간 정책은 21세기 영국 도시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정책서 중의 하나인 『디자인에 의하여(By Design - Urban Design in the Planning System : Towards Better Practice)』에 잘 드러나 있다. 이 정책서는 도시계획을 ‘사람을 위한 장소를 만드는 예술’로 규정하고 기존의 도시설계가 갖는 공학적, 기술적 차원을 예술적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높은 수준의 디자인을 통해 공공공간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즉, 과거의 도시계획에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관리하는 쪽에 치중했다면 앞으로의 도시설계는 어떻게 도시 내의 물리적 시설들과 사람들이 잘 어우러지도록 만드는가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 아래 도시설계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 7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¹²⁾

- 특성(character):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진 장소
- 연속과 위요(continuity and enclosure):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명확히 구분된 장소
- 공공영역의 질(quality of public realm): 매력적이고 성공적인 외부공간을 지닌 장소
- 용이한 이동성(ease of movement): 도시 내에서 접근성과 연계성이 좋은 장소
- 식별성(legibility): 분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진 장소
- 융통성(adaptability): 다양한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장소
- 다양성(diversity): 지역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장소

또한 이러한 기본 목표를 토대로 『잘못된 디자인의 비용(The Cost of Bad Design)(2006)』을 발간하고 좋은 도시디자인의 주요 원리 또는 특성을 다음의 8가지로 정리하였다.

- 공간적 특성과 특이성(character+distinctiveness): 지역의 발전과 문화의 독특한 패턴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특성
- 연속성과 위요감(continuity+enclosure):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을 분명하게 한정하는 공간의 위요감과 전면 가로의 연속성
- 공공공간의 질(quality of the public realm) :안전하고 정돈되고 활기차며 관리가 용이한 공공공간과 통로 그리고 디자인 잘된 건축물 사이 공간
- 연계와 투과(connectivity+permeability): 장소를 서로 연결하여 접근성과 투과성을 높여 사람 이동의 편리성
- 식별성과 정체성(legibility+identity) : 인식가능한 통로, 결절점, 특징 등을 통해 이용자

12) 김정후, “케이브와 21세기 영국 공공공간 정책의 시사점”, 『월간 국토』, 2007, V.320. pp.107-108.

들이 방향 감각을 잃지 않는 식별성

- 적응성과 견고함(adaptability+robustness):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시장의 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변화에 적응력
- 다양성과 무장애(diversity+inclusiveness): 생기있고 성공적인 장소를 만들기 위해 서로 다른 여러 용도의 혼합
- 통합과 효율(integration+efficiency):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동을 줄이면서 토지이용, 수송, 자연 자원을 통합

도시공간을 좋은 장소로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민계층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미국 PPS(Project for Public Space)¹³⁾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조율을 통해 지역과 장소를 재생시키기 위한 ‘장소 만들기 기법’의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법과 실현 사례들은 책이나 홍보자료로 발간하거나 PPS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람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PPS에서 발간한 『장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How to Turn Place Around)(2000)』는 어떠한 요인들이 좋은 장소를 만드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결국 좋은 장소를 조성하기 위한 기준이며, 곧 장소의 ‘성능 평가 기준’으로 작동하게 된다.¹⁴⁾

PPS에서 제시하고 있는 좋은 장소의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접근과 연계(access & linkages)이다. 좋은 장소에서 접근성은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장소와 관련된 요소가 시각적, 물리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적절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가로와 건물이 맞닿는 경계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폐쇄된 창과 벽이 만드는 건물전면보다 상점과 카페가 건물전면에 연속하여 입지한다면 가로는 활력있고 매력있는 장소로 발현될 수 있다.

두 번째 안락함과 이미지(comfort & image)이다. 안락하고 편안한 장소는 그 자체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데, 이러한 안락함은 안전하고, 깨끗하

13)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공적공간의 생성과 유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1975년에 건립된 비영리단체로, 이를 위해서 기술적인 지원, 훈련, 연구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장소만들기”라 불리는 공적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뉴욕을 중심으로 공원, 시장, 가로, 역사, 도서관, 그리고 도시속의 공적공간을 개선하여 활기가 넘치는 커뮤니티 중심의 장소를 만들기 위해 PPS는 다양한 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47개주, 26개국의 2000여 공동체와 함께 협력하여 활동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PPS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도시 공공공간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개념정립 및 현황조사 연구』(이상민 외, 2008), pp.120-123 참조.

14) PPS 공식홈페이지는 http://www.pps.org/info/bulletin/what_is_placemaking이다.

며, 앉을 공간이 많아 사람들에게 활발히 이용될 때 만들어진다고 한다. 특히 안락한 장소에는 여성과 아이들이 이용이 많으므로 안락함과 이미지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아이들의 이용률을 측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세 번째는 이용과 활동(uses & activities)으로, 사람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건물 용도와 기능에 따라 달라지는데, 좋은 건축물의 용도와 기능은 사람들이 공간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 반대로 건물의 기능과 용도가 공간에 기여를 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활동은 사라지고 공간의 활력도 없어지게 되므로 건물의 용도와 기능은 공간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네 번째 사회성(sociability)이다. 좋은 장소에서는 사람들의 북적임, 친구와 이웃과의 만남 등 적극적인 활동들이 나타난다. 사람들의 교류와 활동은 장소가 갖는 특성(sense of scale)을 강화시키고, 장소성은 사회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한편 마르커스(Marcus)는 공공공간이 갖춰야 할 특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¹⁵⁾

- 쉽게 접근이 가능해야하며, 이용자들에게 시각적으로 쉽게 노출되어야 한다.
- 이용을 위한 공간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 외부에서 볼 때나 내부에 들어왔을 때나 아름다워야 한다.
- 예측되는 행위들이나 바람직한 행위들을 지원하는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 안전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 도시적 스트레스로부터 이완될 수 있고 건강과 감성적 웰빙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용자그룹의 욕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소수그룹의 이용을 장려해야하며 그룹간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가장 이용이 많이 이루어질 때도 일조 및 그늘, 통풍 등이 원활하여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 어린이와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해당공간의 관리주체의 성격과 철학적으로 부합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 이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요소를 활용한다.
- 이용자들이 공공공간의 설계, 시공, 관리의 과정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하여 장소에 대한 애착심과 참여를 통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15) C.C. Marcus and Francis, C. eds, 『People Places: Design Guidelines for Urban Open Space』 (1998).

- 쉬우면서 경제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 공간의 사회적인 기능뿐만이 아니라 예술적인 가치를 중시하며, 둘 사이에 균형을 이뤄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좋은 공간환경을 만드는 또는 좋은 공간환경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기 이전에 좋은 공간환경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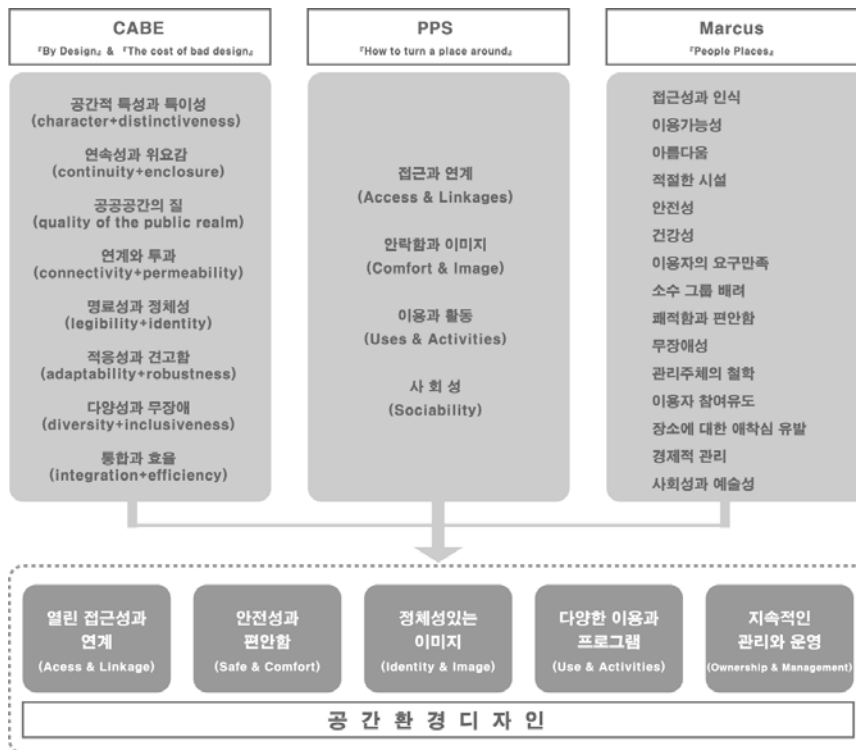


그림 2.1 좋은 공간환경의 조건

첫 번째 조건은 열린 접근성과 자연스러운 연결(access & linkage)이다. 이러한 공간은 인지하기 쉬운 공간(readability),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accessibility & convenience), 가까이에 있어 쉽게 접근가능한 공간(proximity), 연속적으로 이어진 공간(continuity & connectedness)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두 번째 조건은 안전성과 편안함(safe & comfort)이다. 이것은 친근한 공간(friendliness), 앉아서 쉴 수 있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sittability

& relaxation), 걷고 싶고 걷기 편한 공간(walkability), 장애인·노약자 등의 이용을 배려한 공간(universality)을 좋은 공간환경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조건은 다양한 이용과 유연한 프로그램(use & activities)으로, 도시 여가 활동의 무대가 되는 공간(urban recreation), 흥미를 유발시키는 공간(attractiveness & enjoyment),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가능하며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diversity)을 의미한다.

네 번째는 정체성있는 이미지(identity & image)로, 역사·문화적 가치를 습득할 수 있는 공간(history & education), 문화적 자산으로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pride), 이야기 거리가 있는 공간(story telling), 아름다운 외관으로 예술적 가치를 지닌 공간(beauty & charm), 품격높은 디자인으로 계획되고 시공된 공간(design & detail)이 되어야만 좋은 공간환경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ownership & management)으로, 조성 및 관리 과정에 참여하여 애착이 있는 공간(participation), 경제적으로 유지·관리가 가능한 공간(affordability & maintenance), 오래도록 지속가능한 공간(sustainability)이야말로 좋은 공간환경의 중요한 조건이다.

공간환경디자인이란 무엇인가

2

1) 공간환경디자인의 개념

(1) 공간환경디자인의 개념 정립

그렇다면 ‘공간환경’ 과 ‘디자인’ 란 단어가 결합한 공간환경디자인의 개념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좋은 공간환경 만들기’ 라고 할 수 있다. 즉, ‘공간환경(built environment)’ 이라는 단어에는 좋은 공간환경의 의미가 담겨져 있으며, ‘디자인’ 이라는 단어는 ‘만들기’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좋은 공간환경이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간환경, 즉 공간구조와 공공공간, 경관이 ‘열린 접근성과 자연스러운 연계’, ‘안전성과 편안함’, ‘다양한 이용과 유연한 프로그램’, ‘정체성있는 이미지’,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킨 총체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디자인(design)’ 이란 이러한 공간환경을 만드는 방식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디자인이라 하면 주어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조형요소(造形要素)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구성하여 유기적인 통일을 얻기 위한 창조활동이며, 그 결과의 실체라 정의된다.¹⁶⁾ 그러나 디자인이란 단어가 갖는 의미의 어원을 거슬러 살펴보면 디자인의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옥스퍼드 사전에 따르면 디자인은 두 가지의 어원적 유래를 지니고 있다. 첫 번째 어원은 15-16세기 불어 ‘데쟁(Dessein)’ 과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라틴어 ‘디세뇨(Disegno)’ 로서, 이 두 단어의 뜻은 계획, 의도, 목적, 모델, 그림을 의미하는데, 이제까지 디자인은 이러한 어원적 의미에서 주로 정의되었다. 따라서 많은 디자인 이론가들은 디자인을 인간의 특정 목적을 위해 무언가를 ‘계획하는 활동’ 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어원은 라틴어 ‘데시그나레(Designare)’ 로, 이것은 ‘지시하다 또는 의미하다’ 를 뜻하며, 어원적으로는 ‘de’ 와 ‘signare’ 의 결합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을 다시 어원적으로 분석하면 ‘기존의 기호로부터 분리시켜 새로운 기호를 지시하다’ 를 의미하게 된다.¹⁷⁾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하면 디자인은 한마디로 ‘이미 존

16) 두산백과사전 참조.

17) 여기서 ‘de’는 영어로 ‘to separate’ 또는 ‘to take away’의 의미로 ‘~을 분리하다 또는 취하다’를 뜻하며, ‘signare’는 기호 또는 상징(sign 또는 symbol)을 의미한다.

재하는 기호를 해석해서 새로운 기호를 창조하는 행위'라 정의된다. 즉 우리가 어떤 인공물을 디자인하는 것은 단순히 사용에 편리하고 보기에 좋은 물질적 수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새로 만들고 그렇게 하기로 우리 서로가 약속하는 것¹⁸⁾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¹⁹⁾

따라서 좋은 공간환경의 디자인, 즉 좋은 공간환경을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다양한 주체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이 가능한 **협력적 디자인(collaborative design)**,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등을 총체적으로 인식하여 장소를 만들기 위한 **통합적 디자인(holistic design)**, 삶의 토대로서 생활공간을 만드는 **프로세스 디자인(process design)**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좋은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한 접근 방법이며, 공간환경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자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따라서 공간환경디자인에서 중시하는 가치는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적 작업 체계, 다양한 부문 간의 통합, 공간환경의 체험적·장소적 가치, 공간환경을 만드는 과정 등이며, 건축기본법 제21조에서는 이러한 공간환경디자인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건축디자인기준'²⁰⁾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18) 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 탐사』 (솔출판사, 1997), pp.4-11.

19) 디자인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디자인이 단지 시각적인 개념에 국한되어 있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 “디자인은 하나의 목적 지향적인 문제해결 활동이다(B. Archer)”, “특별한 일련의 상황에서 진정한 필요성의 핵심에 도달하기 위한 적절한 해결방법이다(E.Matchett)”, “주어진 상황을 보다 더 나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일련의 활동을 고안하는 모든 사람의 노력이 곧 디자인이다(Herbert Simon, 1988)”, “디자인은 상징적,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물질적 사물들, 조직화된 서비스와 활동, 복합적인 체계 혹은 환경 등이 네 가지 영역을 통합하는 인공물의 개념화와 기획이다(Richard Buchanan, 1990)”, “사람들은 모두 디자이너들이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해온 일들은 모두 디자인에 기반을 둔 것이다. 디자인 프로세스는 우리가 예견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떤 행동을 기획하고 양식화하는 것이다. 디자인이 인생에 내재하는 원초적인 기반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서사시를 쓰고, 벽화를 제작하고, 명화를 그리고, 명곡을 작곡하는 것이 디자인이다. 또한 책상 서랍을 정리 청소하고, 충치를 뽑아내고 사과 파이를 굽고, 농구 경기장의 관람석을 선택하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모두 디자인이다. 디자인은 곧 의미 있는 질서를 만들어 내기 위한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다(Victor Papanek, 1992)”. 황기원, 『공공디자인 진흥법 제정을 위한 연구』 (문화관광부, 2006), pp.7-8.

20)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환경 디자인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2008) 참조. 현재 건축디자인기준 수립을 위하여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건축디자인기준은 건축행위에 관한 규제나 디자인 자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만드는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지켜야할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기획, 계획 및 설계, 시공, 관리·이용에 이르기까지 좋은 건축물 및 공간환경조성을 위한 디자인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각 단계별로 디자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판단기준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건축디자인기준의 목적은 건축물과 공간환경디자인의 초기 기획업무 강화와 디자인 전 과정을 총괄 조정·관리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역할의 정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협력적 설계관리 시스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림 2.2 공간환경디자인의 개념 정립

궁극적으로 공간환경디자인의 목적은 도시, 지구, 건축물 사이가 서로 유기적이지 못하고 수직적이거나 일방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보완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좋은 공간환경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즉,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삶의 공간적 토대로서 안정되고 아름다운 도시의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를 만드는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공간환경디자인의 최종 지향점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건축의 공공성²¹⁾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건축기본법의 기본이념으로 이러한 점에서 공간환경디자인과 건축기본법이 같은 맥락 속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관련 개념 검토

공간환경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관련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공공디자인(public design)

현재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公+共’ 디자인은 단어 그대로 ‘공공을 위한 디자인’과 ‘공공에 의한 디자인’이라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2006년 발의되었다가 무산된

21) 건축기본법에서는 건축의 공공성을 생활공간적 공공성(안정성 확보, 사용자의 건강과 약자에 대한 배려), 사회적 공공성(사회의 다양한 요구 수용,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의 조성), 문화적 공공성(건축의 문화적 가치 향상, 창의성 존중, 지역성, 역사성 반영, 기존 공간과 조화)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건축기본법 제2장)

‘공공디자인에 법률안’ 제2조 정의 부분에서 공공디자인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시설·용품·정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그 결과물” 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나 많은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공공디자인은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공공에 의한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공공디자인은 공공이 조성하는 공공공간과 그 안에 시설물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반면, 공간환경디자인은 공공공간은 물론이고 공간과 건축물들이 이루는 도시의 공간 구조, 예를 들면 필지체계라든지 건축물의 유형, 건축물과 대지, 건축물과 공간의 관계 등을 그 대상으로 하여 그것들을 다루는 방식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 경관계획

경관계획수립지침(건설교통부고시 제 597호)에서 경관계획은 “지역의 자연 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도시·농산어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기 위한 정책방향, 기본구상 및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 법정계획” 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기본경관계획과 특정경관계획으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경관계획은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관의 개념은 경관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 이다.

□ 도시설계(urban design)와 지구단위계획

도시설계란 도시공간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에 개입하여 도시를 도시답게 만들어가려는 것으로, 두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먼저 도시의 물리적 환경 일체를 설계하여 의도한 대로 짓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도를 준비하는 일이 핵심이 된다. 다른 한 가지는 규제라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성하려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지구단위계획이 이에 속한다.²²⁾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의 중간계획으로 현행 제도상 도시계획을 기존 시가지의 특정지역에 적용하여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상세한 도시계획이면서 집합적 건축계획에 관한 입체적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별 건축이 이룰 수 없는 바람직한 지구 전체의 수준 높은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전체에 대한 개략적인 도시계획을 지구특성에 맞게 구체화

22) 한국도시설계학회, 『지구단위계획의 이해』 (2005), p.8.

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과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구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²³⁾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명시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종과 제2종에 의해 구분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 그리고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²⁴⁾

도시설계는 공간환경디자인과 가장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사한 개념을 가진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환경디자인’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려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도시설계의 법적 실행력을 가진 것이 바로 지구단위계획이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면서 하나의 실무적 영역이 되자 그 본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설계란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면 현재 도시설계라는 개별적인 학문 분야에 국한되어 기존의 접근 방식을 그대로 고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공간환경디자인은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적인 접근, 개별적 대상물이 아닌 총체적인 장소로의 접근,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물보다는 만드는 과정 중심적 접근을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학제간 영역이나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여 응용되는 영역으로서의 ‘공간환경’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²⁵⁾

□ 관련 개념과 공간환경디자인

공간환경디자인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총체적인 장소로서 좋은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 가로, 공원 등 개별 대상물 중심적인 방법과는 다르게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인식하여 다루고자 한다. 즉 공간환경디자인은 공간환경이라는 대상을 디자인하는 행위

23) 앞의 책, p.18.

24) 앞의 책, p.30.

25) 건축기본법도 비슷한 맥락에서 ‘공간환경’이라는 개념을 선택하여 법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를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공간환경에 속하는 대상들을 좋은 공간환경으로 만드는 방법에 주목한다. 따라서 공간환경디자인은 도시의 공간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방식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건축물은 물론이고 공간환경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가치와 밀접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물리적 대상에 대한 어떠한 행위 또는 업역, 설계방법과 관련되어 있는 공공디자인, 경관계획, 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개념들과 차이를 두고자 한다.

2) 공간환경디자인의 가치

좋은 공간환경의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 영국의 케이브(CABE)는 『공공공간의 가치(The Value of Public Space)』를 발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공간이 창출할 수 있는 가치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²⁶⁾ 먼저 공공공간은 도시 재개발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공공공간이 포함되는가에 따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가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그 도시가 어느 정도 매력적인가의 문제와도 밀접하며, 이것은 곧 투자를 유도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다음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비만은 식습관 못지않게 운동 부족이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사회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육체적 건강과 더불어 정신적 건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공간은 사람들로 하여금 외부에서 머물고,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역할을 한다.

또 다른 가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것으로, 어린이들은 놀이를 통하여 인간관계, 사회성, 도덕성, 인지능력 등을 배울 수 있는데, 급격한 도시화는 과거와 비교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외부학습 기회를 축소시켰다. 따라서 마을과 학교에 놀이 및 스포츠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적절하게 조성하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 큰 가치를 갖는다.

또한 디자인이 잘 되고 관리가 잘 되는 공공공간은 항상 사람들을 머물게 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범죄를 감시하는 효과를 낳는다.

다음은 사회적 통합의 기능으로,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커뮤니티의 경우 공

26) 이상민 외, 『도시 공공공간의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개념정립 및 현황조사 연구』(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8). pp.25-26.

공공공간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장소의 제공은 물론이고 운동, 놀이, 축제 등을 통하여 커뮤니티 구성원 간의 유대를 강화시킴으로써 사회적 차별을 없애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좋은 공간은 걷기와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차량 이용을 줄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고, 동시에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가치로, 녹지를 가진 공공공간은 도시 내의 환경적 부조화를 해결하며, 동시에 야생동물과 곤충의 서식처 역할을 함으로써 생태계 복원에 큰 역할을 한다.

CABE는 『가치에 대한 안내서(The Value Handbook)』라는 자료집에서 다시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일종의 상품으로 거래되어 가격이 정해질 수 있는 교환 가치, 생산성이나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 이용 가치, 도시나 회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미지 가치, 커뮤니티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사회적 가치, 기후 변화, 환경오염 등의 관점에서 보는 환경적 가치, 지역 또는 도시의 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 가치로 정리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미국의 PPS는 도시에서 공공장소(public place)의 중요한 역할을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²⁷⁾ 먼저 장소는 도시에 아이덴티티를 부여한다. 중요한 도시들은 반드시 멋진 공공장소를 가지고 있다. 뉴욕의 록펠러 센터, 파리의 에펠탑, 상젤리제 거리, 베니스의 산 마르코광장, 뉴욕의 센트럴 파크, 산 안토니오의 마이애미 해변 등이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장소들이다. 이러한 장소들은 그 도시의 정체성으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곳에서 살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역할을 한다.

다음은 도시에서 장소의 경제적인 측면이다. 예를 들어 공원은 도시의 지가에 많은 영향을 준다. 브라이언트 파크, 센트럴 파크, 프로스펙트 파크, 리버사이드 파크 주변의 부동산은 뉴욕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또한 사람들이 걷고 모이고 쇼핑할 수 있는 가로를 조성하는 것은 도시나 마을에서 장소만들기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지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가 된다.

장소는 환경적으로도 이익을 준다. 공공장소는 자동차 이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공원이나 수변공간, 어느 정도 야생성이 보전되고 있는 녹지는 자연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높여주고 다양한 생물들에게 서식처를 제공한다.

27) PPS, 『How to Turn a Place Around : A Handbook for Creating Successful Public Spaces』 (2000), pp.13-15.

마지막으로 장소는 문화적 활동의 배경을 제공한다. 공공장소는 종종 사람들에게 무료로 예술을 접하거나 색다른 문화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는 좋은 공간환경의 가치들을 바탕으로 공간환경디자인에 의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문화적 측면, 환경적 측면, 사회적 측면, 교육적 측면으로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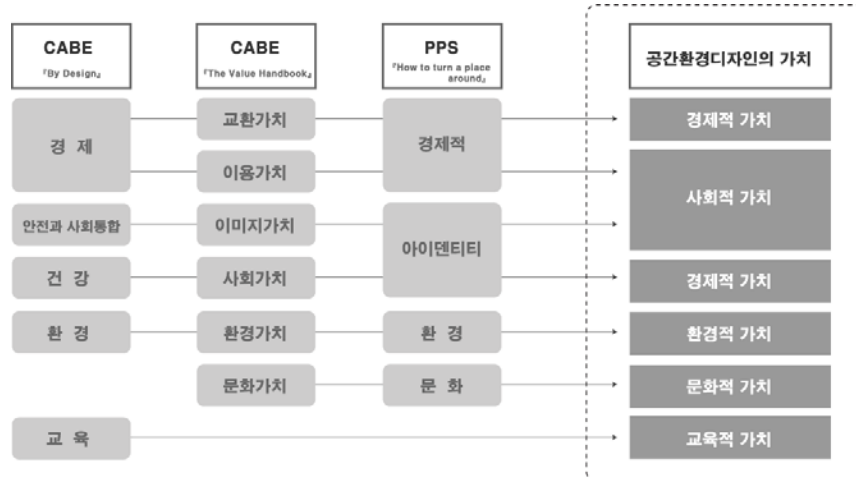


그림 2.3 공간환경디자인의 가치

첫째, 경제적 가치이다. 좋은 공간환경디자인을 통해 도시는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하여 도시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물론이고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도시의 경제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을 증진시키고 이에 따른 교통 체증 감소로 사회적인 경제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인 가치이다. 좋은 공간환경디자인은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 사회의 통합을 유도할 수 있으며, 범죄감소 및 예방, 시민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통해 도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문화적인 가치로서, 좋은 공간환경디자인은 도시 또는 지역의 독특한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도시에서 역사·문화 거점으로서 공간을 형성하고 여가와 축제의 장소를 제공하여 사람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는 환경적인 가치이다. 도시 내 건강한 녹지를 확충하여 도시의 공기 정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이용 감소와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증가로 대기오염과 소음도 줄일 수 있으며, 도심 생태계 또한 복원할 수 있다.

다섯째 교육적 가치이다. 좋은 공간환경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증진시키고 시민의식을 향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공간환경을 역사·문화 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공간환경디자인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참여를 통한 참여 민주주의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3 공간환경디자인의 적용대상

건축기본법 제3조 정의에 따르면 “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 공공공간, 경관”을 말하며,²⁸⁾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블록, 필지체계, 건축유형 등의 공간구조와 가로·광장·공원 등 공공공간은 도시의 다양한 층위를 이룬다. 또한 경관은 다양한 층위가 누적됨으로써 만들어 내는 총합으로 볼 수 있다. 다음에서는 각각의 적용대상에 대해 적용방안과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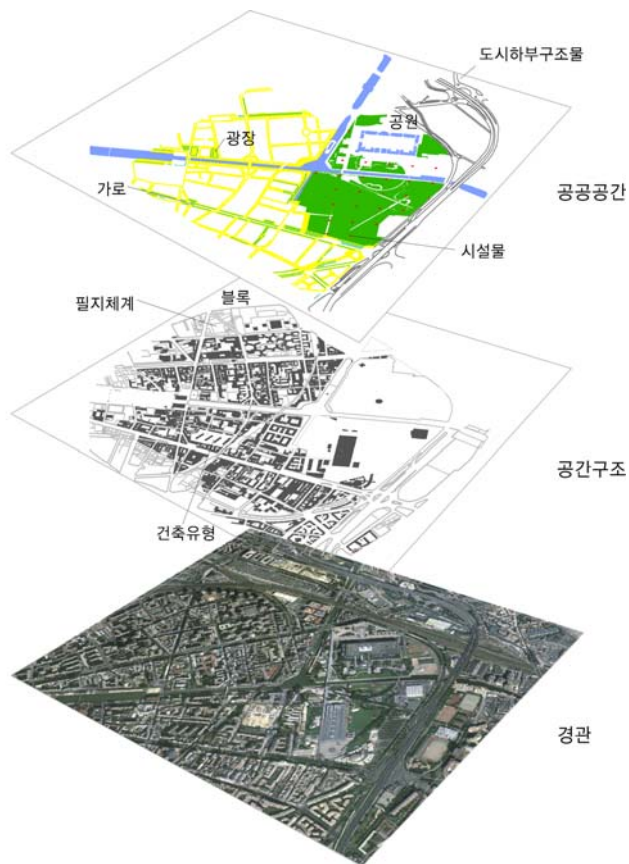


그림 2.4 건축기본법에 기초한 공간환경의 적용대상

28) 김광현은 ‘공간환경’이란 개개의 건축행위를 도시, 가구, 대지 등 다양한 레벨에서 누적시켜 가면서 풍부한 도시공간과 공공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김광현, “건축기본법과 공간환경디자인”, 『지속가능한 공간환경디자인 토론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8), p.9.

1) 공간구조

공간구조는 대지와 건축물이 만들어 내는 관계라고 볼 수 있으며, 가로망 구축에 의한 블록, 필지체계, 건축 유형(typology)에 따라 다양한 공간이 만들어진다.²⁹⁾ 그러나 20세기 근대도시계획은 이들의 유기적 관계를 부정하고 대지, 교통체계, 건축물을 독립적인 요소로 인식하였다.³⁰⁾ 또한 도시 인구 증가와 기술의 발달로 주거·업무·상업 건물이 고층화되면서 오늘날 도시에서 건축물은 대지, 혹은 주변 환경과 고립되고 전통적인 도시의 공간구조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공간환경디자인은 공간구조를 새로 구축하는 일 뿐 아니라 이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공간구조를 이루는 개별 요소들 사이 공간 역시 공간환경디자인의 대상이다. 건축물, 대지, 주변환경 등에 대해 총체적인(holistic) 관점에서 접근하고 건축물과 대지와의 관계, 건축물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 등을 재설정함으로써 풍부한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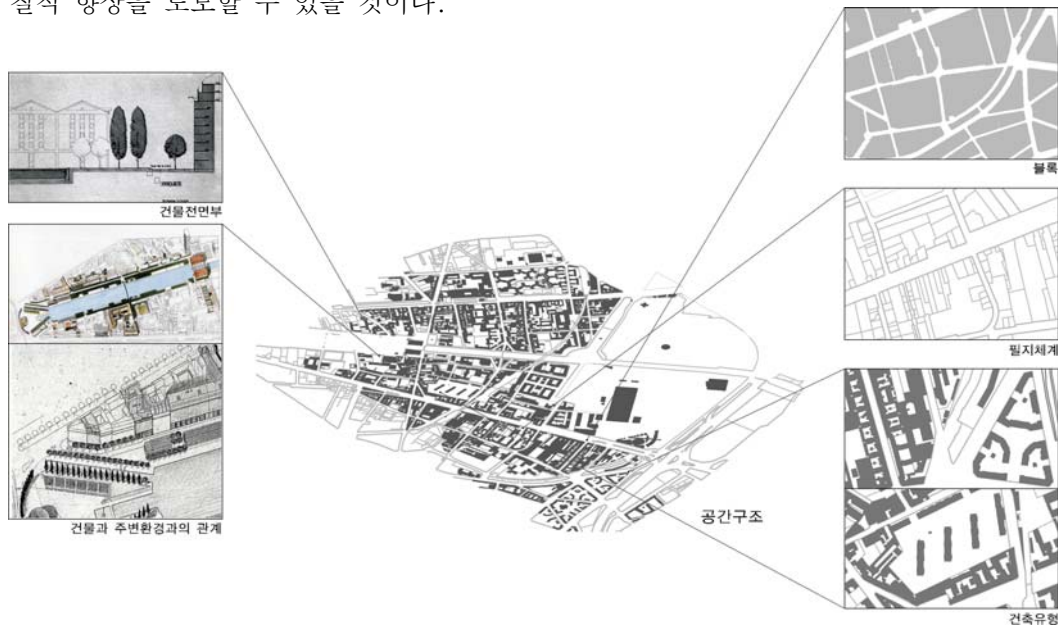


그림 2.5 공간환경디자인의 적용대상-공간구조

- 29) 『신도시 공간환경디자인 업무매뉴얼작성 및 운영방안 수립 연구』(한국토지공사, 2008)에서는 공간구조를 “건축물이 놓이는 대지와 그 경계, 인접하는 도로와 다른 건물과의 배열, 크기, 형태 등이 거주자의 생활과 지역지구의 구성에 미치는 집합적이고 입체적인 체계”라고 정의하였다.
- 30) 근대 도시계획의 근거가 되는 아테네헌장에서는 주거, 여가, 업무, 교통에 대한 명확한 기능적 분리를 천명하였다.(르코르뷔제, 1941) 이외에도 르코르뷔제는 ‘브아쟁 계획(Plan Voisin, 1925)’을 통해 파리 중심부의 전통 도시조직을 고층건물군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1) 공간구조 : 가로체계와 블록, 필지체계, 건축유형

도시 공간은 가로와 건물들에 의해 규정되어지는 연속된 공간조직이다.³¹⁾ 가로와 건축물이 이루는 다양한 관계에 따라 공간환경의 질이 결정되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행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³²⁾ 자연발생적인 달동네의 경우 건축물과 길, 마당은 서로 유기적으로 얹혀 있으며, 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소통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의 재개발로 조성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들 사이의 교류의 기회가 현저하게 적어진다.

따라서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건축물 외관이나 시설물 등 개별 요소에 대한 관심에 앞서 공간구조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하며,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와 삶의 방식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구조를 구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공간환경의 현실

기존의 도시조직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 재개발

새로운 지구개발보다 기존 도시를 대상으로 한 재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현 시점에서 이제까지의 재개발은 대부분 기존 도시조직을 무시한 전면 재개발 방식을 취하였다. 그 결과 길과 마당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도시조직은 점차 거대한 스케일의 아파트 단지로 대체되고 있다.



그림 2.6 서울시 관악구 난곡지구 재개발 전후 모습

평가

열린 접근성과 연계	×	길과 마당, 집 사이의 유기적 관계는 사라지고 주변 환경으로부터 고립된 폐쇄적 공간구조로 변화
안전성과 편안함	×	지형과 관계없는 배치로 가파른 계단, 옹벽 등 비인간적 환경 조성
다양한 이용과 프로그램		
정체성 있는 이미지	×	천편일률적인 경관의 아파트 단지로 바뀜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31) 최윤경, 『7개의 키워드로 읽는 사회와 건축공간』 (시공문화사, 2003), p.39.

32) “도시공간에서는 이곳을 움직이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일상적 경험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지며, 그 구성적 특질은 이러한 교류의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어떤 도시는 공간의 분절, 격리, 차단 등을 통해 집단구성원 상호간의 교류를 억제할 수 있으며, 또 다른 도시는 지역 간의 교류 또는 이용자 집단 상호간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기도 할 것이다.” 위의 책, p.39.

공간구조

공간환경디자인 적용방안과 사례

□ 환경정비사업을 통한 전통적인 공간구조 보존



그림 2.7 북촌 한옥등록 및 개보수현황(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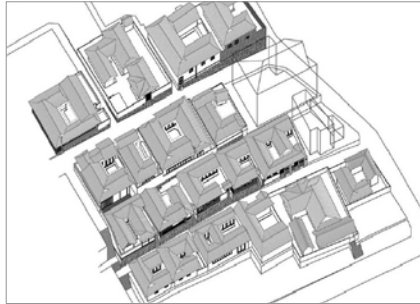


그림 2.8 북촌의 건축유형(김영수 도면, 서울특별시, 200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과 북촌은 전통적인 도시조직을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서 인사동의 경우 지구 단위계획, 북촌은 마을만들기 방식으로 공간구조를 보존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 기존의 도시조직을 보존·활용하는 특별 토지이용계획 수립



그림 2.9 파리시 포브르 생탄트완느(Faubourg St. Antoine)지역(Paris Projet N° 32-33,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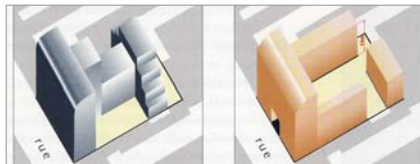


그림 2.10 파리시 포브르 생탄트완느 지역 일반토지이용계획과 특별토지이용계획 적용에 따른 건축유형 비교(Paris Projet N° 32-33, 1998)

프랑스 파리시는 1977년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토지이용계획(POS : Plan d'Occupation du Sol)을 수립하는데,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점차 지역의 정체성이 사라졌다. 이에 각 지역의 가로 및 필지체계, 건축유형을 고려한 특별토지이용계획³³⁾을 수립하여 기존 도시조직을 보존하고자 하였다. 위 사례에서 보이는 포브르 생탄트완느는 17-18세기부터 수공업 및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남북으로 긴 필지와 중정을 중심으로 한 'ㄱ'자형 건축유형이 발달하였다. 파리시는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보존하기 위해 이 지역에만 적용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필지 사이의 인접 제한, 주변 상황을 고려한 높이 규정 등을 제안하였다.

33) 이는 '구역 토지이용계획(POS de Quartier)'이라 불리며 1989년 토지이용계획 개정 시 추가되었다. 이후 '사회연대 및 도시재생법(SRU)' 제정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지역도시계획(PLU)로 바뀌면서 PLU 안에 통합되었으나, 지역의 특수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조항들은 그대로 담고 있다.

북촌가꾸기 기본계획(2001)

서울을 대표하는 한옥마을인 북촌을 보전하고 새롭게 가꾸기 위한 한옥등록제 관련 제도와 정책방향, 한옥의 수선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살기좋은 북촌을 만들기 위한 환경정비계획 등을 제시

참고자료
『북촌가꾸기 기본계획 보고서』(2001)

파리시 특별 토지이용계획(1989-)

1977년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개정 상젤리제, 몽마르뜨 등 특정 지역들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목적 이후 PLU에 통합되었으나, 개별 원칙들은 유지

참고자료
『Paris Projet N° 32-33』

(2) 공간구조 내에서 개별 요소들의 사이공간

블록, 필지체계, 건축유형 등에 따라 공간구조를 이루는 개별요소들 사이에는 다양한 관계가 형성된다. 양적 성장 위주의 공간 조성 방식에서는 주거, 업무, 상업, 도로 등 순수한 기능을 하는 공간들 외의 사이공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건축물과 가로 사이, 건축물과 대지 사이 공간은 인간적인 스케일에 대한 고려 없이 버려진 공간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들 사이공간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간으로서 공간환경디자인의 중요한 대상이 된다.

건축물과 대지 사이의 관계, 건축물과 주변 환경의 관계, 건축물과 가로와의 관계, 건축물과 공공공간이 만나는 접점인 건물 전면부에 대해 우리나라의 현실과 공간환경디자인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건축물과 대지 사이의 관계

우리나라 공간환경의 현실

주거지역의 공간환경 - 아파트 단지

우리나라 도시공간의 대부분을 이루는 아파트 단지는 주변 환경과 고립되어 외부인들의 접근이 불가능한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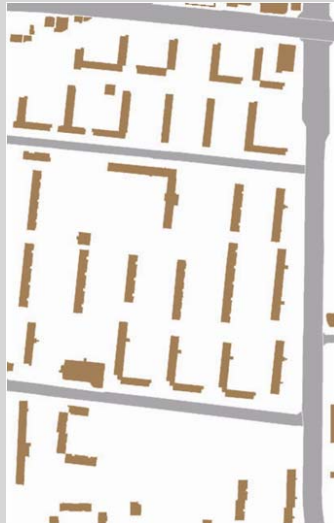


그림 2.11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주상복합단지 입구와 인근 아파트 단지주변 보도

평가

열린 접근성과 연계	×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 질 높은 외부공간이 조성되고 있으나, 외부인의 접근은 통제되어 폐쇄적인 공간으로 운용
안전성과 편안함		
다양한 이용과 프로그램	×	상가시설 외에 보육·문화 시설 등이 매우 부족
정체성 있는 이미지	×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주동 배치와 획일적인 외관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건축물과 대지 사이의 관계

공간환경디자인 적용방안과 사례

□ 건축물과 대지와의 관계 재설정(Groundscape³⁴⁾)

기존 도시에 대한 정비가 도시 개발의 주축을 이루는 도시재생에 있어서 공간환경디자인은 기존 도시 환경의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³⁵⁾ 20세기 전 세계 도시계획에 영향을 끼친 아테네 헌장에 따르면 자동차 중심의 도로체계, 거주, 업무 기능의 명확한 분리가 강조되었으며, 건축물은 대지와 분리되어 자유로운 개체로 계획되었다. 유럽에서는 1970년대부터 전면적 재개발 방식에 대한 반성으로 기존 도시구조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도시재생으로 정책이 변화하였으며, 필지체계와 건축유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최근에는 '전후 도시에 대한 치유'라는 목표 아래³⁶⁾ 건축물과 대지, 건축물과 가로,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도시에서 인간적인 스케일을 되찾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얻고 있다.



그림 2.12 정비사업 전후 아파트 모습과 평면상 변화-1.공공공간개선, 2.기존건물 철거, 3.소규모 건물 신축, 4.주택리모델링 5.예술학교와 아틀리에(Ariella Masbouni, 2005)

위 사진과 도면은 프랑스 파리시 13구 나소날가로(Rue Nationale)에 위치한 주거단지 재정비 프로젝트 전과 후를 비교한 것이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점은 건축물이 대지와 만나는 부분에 대한 고려로, 가로변에 소규모 주거 및 공공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인간적인 스케일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공공간을 재정비하여 자동차로 뒤덮였던 주차 공간을 일상적인 삶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성과를 이루었다.

나소날가로 집합주거단지 재생 (1992-1996)

발주 : 파리시부동산개발공사
건축가 : 크리스티앙 드 포잠박
(Christian de Portzamparc)
예산 : 약 22,000,000 유로

참고자료
Ariella Masbouni, 『Régénérer les
Grands Ensembles』,
Edition de la Villette, 2005

34) landscape는 '땅(ground)'과 '경관(scape)'의 합성어로 '대지의 경관'을 뜻한다.

35) 바르셀로나의 도시 재생을 이끈 오리올 보이가스(Oriol Bohigas)는 기존 도시가 가진 문제점에서 시작하여 부분부분 도시 공간을 개선해가는 방법을 사용하여 도시 공간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도시정비방식을 바르셀로나 모델(Barcelona model)이라 부르기도 한다.

36) 대표적인 예로 프랑스에서는 '전후도시에 대한 치유(Réparer la ville d'après-guerre)'라는 목표 아래 1950-60년대 개발된 대규모 주거단지를 대상으로 공간구조의 재편, 공공공간 개선, 공공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파리지의 경우 '주거공간화(Résidentialisation)' 사업을 통해 프롱 드 센느(Front de Seine), 올랭피아드(Olympiade) 지구에 대한 재정비 공사를 추진하였다.

② 건축물과 주변 환경의 관계

주거단지에 대한 재생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를 재설정함으로써 건축물은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건축물을 둘러싼 공간은 건축물과 연계되어 통합적인 공간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공간환경 디자인은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도시 공간에서 서로 분리되어 관계 맺지 못하고 있는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 주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공공청사,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공공건축은 공공에 의해 계획되고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특성 상 주변 공공공간과 통합적으로 계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형태로 주변 환경과 고립되어 계획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공공건축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 운동장 공원화, 공공건축 담장허물기³⁷⁾ 등을 통해 폐쇄적이었던 공공건축이 지역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공간환경의 현실

주변과 소통하지 못하고 고립된 공공건축

공공건축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에 폐쇄적이고 권위적 형태로 건축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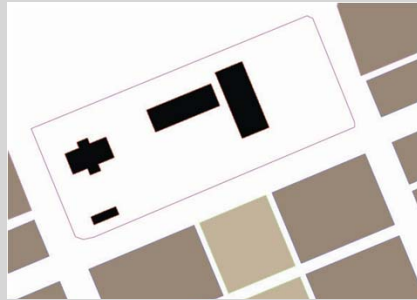


그림 2.13 안양시청 주요건물 배치



그림 2.14 안양시청 전경

평가

열린 접근성과 연계	×	최근 열린 공공건축으로 변화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아직 폐쇄적이고 고립된 경우가 많음
안전성과 편안함		
다양한 이용과 프로그램	△	최근 다양한 문화시설과 복합화하려는 시도가 있음
정체성 있는 이미지	×	대부분 권위적인 좌우대칭 형태를 가짐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37) 대구시에서는 지역 13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사랑운동 시민회의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1996년 담장허물기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05년 말까지 시내 개인주택, 아파트, 관공서, 종교시설, 학교 등 362 곳 17km의 담장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약 257,000m²이 조성되었다.

건축물과 주변 환경의 관계

공간환경디자인 적용방안과 사례

□ 공공건축과 주변의 통합적 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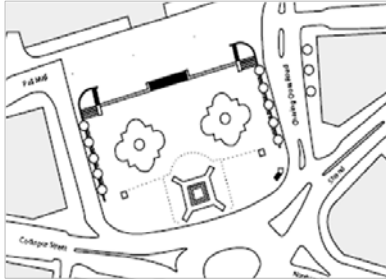


그림 2.15 런던시 트라팔가 광장 평면(Jan Gehl, 2004)



그림 2.16 런던시 도심과 트라팔가 광장 (Jan Gehl, 2004)

그림 2.17 런던시 트라팔가 광장에서
내셔널갤러리를 바라본 모습

그림 2.18 런던시 내셔널갤러리 전면 보행자 가로

트라팔가 광장 보행공간화 사업
(2003)발주 : Transport for London Street
Management디자인팀 : Atkins Ltd/
Foster & Partners참고자료
www.cabe.org.uk

트라팔가 광장(Trafalgar square)은 런던 중심부에 위치하는 런던의 대표적인 광장이다.³⁸⁾ 하지만 자동차도로로 둘러싸여 보행자들의 광장 진입이 어려웠다. 광장 북쪽에 위치한 내셔널 갤러리 역시 접근이 어려워서 1991년 벤추리와 스콧 브라운(Venturi & Scott Brown Associate)이 설계한 세인트버리관(Aile Sainsbury)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으나, 트라팔가 광장 주변 도로에 대한 보행자도로화 사업³⁹⁾ 이후 본관이 주 출입구가 되었다. 트라팔가 광장 개선 사업은 광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건축물과 도시공간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접해 있으면서도 관계를 맺지 못하고 각각 개별적으로 인식되던 트라팔가 광장과 내셔널갤러리는 이제 서로 연계되어 하나의 통합된 공간환경을 이루고 있다.

38) 트라팔가 광장은 런던 시민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1840년 배리경 (Sir Charles Barry)이 설계하였다.

39) 트라팔가 광장에 대한 개선 사업은 1990년 중반 웨스트민스터 시티 카운슬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였고 이후 문화미디어체육부, 잉글리시 헤리티지, 런던시 등의 공동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이후 1998년 현상공모에 의해 아트킨즈와 포스터 앤 파트너(Atkins Ltd/Foster and Partners)의 디자인이 선정되었으며, 2003년 완공되었다. 주요 사업내용은, 북쪽에 위치한 내셔널 갤러리 앞 도로를 철거하고 보행자 전용 테라스를 설치하여 보행자 공간을 확보, 테라스와 광장을 연계하는 계단시설 설치, 테라스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는 화장실 및 카페 신축, 모든 광장 진입 구역에 대한 대규모 개선 및 리모델링 공사 등이다.
www.cabe.org.uk, Case Studies 참조

③ 건축물과 가로와의 관계

건축물은 도시 내에서 주거·업무·상업 등 기능을 담는 독립된 구성 요소인 동시에 건축물의 집합은 가로나 광장, 공원 등을 정의하는 배경이 된다.⁴⁰⁾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도시공간의 구성요소로서의 건축물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공간환경디자인은 건축물의 볼륨이나 형태, 입면 구성을 통해 건축물과 가로가 가지는 상호관계를 설정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공간환경의 현실

도시공간과 건축물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인식 부재, 주변 환경에 대한 고려 부족
최대한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볼륨 구성, 간판 난립 등에 의한 인간적이지 못한 공간



그림 2.1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변 건물배치



그림 2.2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전경



그림 2.2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변부



그림 2.22 안양시청 부근 상업지역 이면도로

평가

열린 접근성과 연계	×	보행자 공간의 연속성 부족
안전성과 편안함	×	건축물과 가로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 보행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위험한 환경 조성
다양한 이용과 프로그램		
정체성 있는 이미지	×	주변환경의 특성에 대한 고려 부족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40) 까밀로 지테는 위대한 건물을 통해 도시를 만들기보다는 도시공간을 위해 건물이 계획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한 최초의 이론가 중의 한 사람이다.(최윤경, 2003) 건축을 가로, 광장을 구성하는 배경 요소로서 바라보는 시각은 오스만의 파리대정비계획 등 19세기 후반 유럽의 도시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건축물과 가로와의 관계

공간환경디자인 적용방안과 사례

□ 건축물 볼륨 조정을 통한 가로와의 관계 설정



그림 2.23 캐나다 밴쿠버시 폴스 크릭 노스(False Creek North) 지역



그림 2.24 캐나다 밴쿠버시 조르지아 고가도로(Georgia Viaduct) 주변

캐나다 밴쿠버시의 그린웨이 계획은 단순한 공공공간 계획을 넘어서 건축물과 가로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위의 두 사진은 최근 조성된 밴쿠버의 주거지역 전경으로 가로와 면한 부분에는 2-3층 높이의 연립주택을 배치하여 가로가 인간적인 스케일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저층 연립주택은 보도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보도의 녹지화로 도시의 가로는 보도인 동시에 주택의 정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폴스 크릭 노스 계획(1995)

대상지면적 : 약 10ha

규모 : 2000주거

도시설계 개념 : Civitas Urban Design & Planning(City's consultant)

참고자료

『Vancouver's New Neighborhoods』, City of Vancouver

<http://vancouver.ca>

□ 인접한 건축물들의 형태를 가로와의 상호 관계 속에서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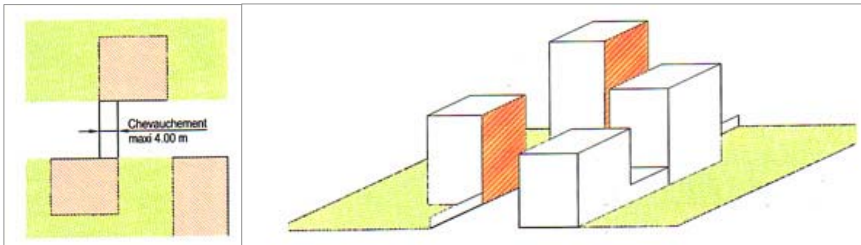


그림 2.25 파리시 파리리브고슈(Paris Rive Gauche) 협의정비지구 내 마세나 구역 건축코디네이터 크리스티앙 드 포잠박에 의한 볼륨 스터디

프랑스 건축가 크리스티앙 드 포잠박(Christian de Portzamparc)은 도시계획 역사를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하는데, 가로 중심의 전통적인 도시조직을 1기, 자유롭게 배치된 건축물 위주의 20세기 도시계획을 2기로 본다. 제3기는 가로의 중요성과 건축의 자율성을 모두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도시를 구축하는 시기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열린 블록⁴¹⁾’ 시스템을 제안한다. 그는 파리리브고슈 협의정비지구의 마세나 구역(1995-2009)에서 가로를 사이에 둔 양쪽 블록에 위치한 건축물의 볼륨을 조정하여 가로와 건축물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였다.

파리리브고슈 마세나구역 계획(1995-2009)

시행사 : SEMAPA

(파리시민관협동개발공사)

코디네이터 : 크리스티앙 드 포잠박

참고자료

SEMAPA, 『Cahier des Charges Particulière d'Urbanisme et d'Architecture, Secteur Masséna』, 1999. 1.

41) 크리스티앙 드 포잠박은 1979년 파리 13구의 집합주택 '오토 포르름(Haute Formes)' 프로젝트부터 시작하여 포트르 다니에르 협의정비지구, 파리리브고슈 협의정비지구 프로젝트 등을 통하여 ‘열린 블록(flot ouvert)’ 개념을 발전시켜왔다.

④ 건축물 전면부(Frontages)

건축물의 전면공간이란 건축물의 외부 공간 뿐 아니라 가로를 걷는 사람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물 저층부의 용도와 건축물 전면 부분까지 포함한다.⁴²⁾ 건축물 전면공간 디자인을 통해 건축물은 가로 및 외부 공간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건축물 전면부는 가로 등 공공공간에 면한 영역으로서 건축선이 그 경계가 된다.⁴³⁾

우리나라 공간환경의 현실

간판 위주의 입면 구성/건축물 전면부 주차공간으로 활용/보행자에 대한 배려 부재
 건축물 전면공간은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이 만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건축선 후퇴로 공지가 조성된 경우에도 대부분 주차공간으로 이용된다.



그림 2.26 대구시 동성로 부근 소규모 상가



그림 2.27 안양시 안양역 주변 소규모 상가



그림 2.28 안양역 부근 소규모 상가 밀집지



그림 2.29 안양시 안양역 부근 상업가로 보도

평가

열린 접근성과 연계	×	건축물 전면공간은 자동차에 의해 잠식당해 보행자의 이동과 접근이 어려운 실정임
안전성과 편안함	×	보행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안전 문제가 심각함
다양한 이용과 프로그램	×	주차 문제 해결을 통해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함
정체성 있는 이미지	×	간판으로 둘러싸인 상업지 입면, 획일적인 주거지 입면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	

42) 김도년 외, 『기업과 함께하는 가로경관과 도시문화 향상을 위한 건물 전면공간 활용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2006), p.4.

43) 건축선은 건물 정면의 연속성을 만들고, 공적 영역을 한정하고 둘러싸는 역할을 한다. 또한 건축선은 새로운 개발로 건축된 각 시설과 건물이 기존의 거리에 통합되도록 돕는다. 건축선을 적게 후퇴시킬수록, 건물이 공적 영역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은 향상된다. 건축선 후퇴로 발생되는 공간은 유용하고 즐거운 곳이 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Llewellyn-Davies, 김경배 외 공역, 『도시설계개론』 (2006), p.88.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경우 건축선이 지정되고 차량 진입로 등 저층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진다. 또한 건축 코디네이터, 책임건축가(master architect) 제도 등을 통해 단지 설계에 있어 연속된 입면으로 통일성 있는 가로 경관을 창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편, 건축물 전면부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접하는 부분으로서 그 유지와 관리에 대한 책임은 민간 부문에 맡겨진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로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간판정비, 건물외관 재정비 등은 공공 부문의 지원을 받아 민간 부문에서 시행하고 있다. 공공에 의해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공공공간과 달리 건축물 전면공간은 사업 종료 후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약속이행 의지가 수반되지 않으면 초기 의도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주민협정’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monitoring)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건축물 전면부

공간환경디자인 적용방안과 사례

□ 코디네이터 제도를 통해 건축물 전면부와 저층부 구성에 대한 지침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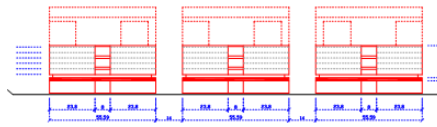


그림 2.30 파리리브고슈지구 톨비악구역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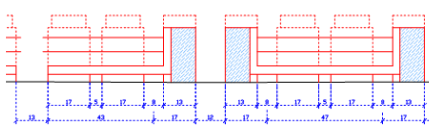


그림 2.31 베르시지구 입면



그림 2.32 파리리브고슈 협의정비지구 전경



그림 2.33 베르시 협의정비지구 전경

프랑스에서는 1977년 건축의 공공성을 천명한 ‘건축에 관한 법(Loi sur l'Architecture)⁴⁴⁾’이 제정되었다. 지구 개발에 있어서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를 도입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편, 건축가들의 다양한 창조 행위를 조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코디네이터는 건축 유형과 도시 구조의 관계 설정을 통해 도시 형태를 제안하고, 이는 주요 배치, 건물의 높이 및 형태 제한, 건물 전면부 디자인, 저층부 계획 등으로 구체화된다.

44) ‘건축에 관한 법’은 “건축은 문화를 표현한다. 건축설계, 건설의 질, 주변환경과의 조화로운 배치, 자연·도시·역사·문화경관 보존 등은 공공의 가치를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한다”는 조항으로 시작된다. 이는 1970년대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움직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었으며, 비슷한 시기에 수립된 파리시토지이용계획(POS, 1977) 지정 등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파리리브고슈 톨비악구역 계획 (1993)

시행사 : SEMAPA
(파리시민관협동개발공사)
코디네이터 : 롤랑 슈웨츠제르
(R.Schuweitzer)

참고자료
『Paris Projet N° 29』
SEMAPA & Roland Schuweitzer,
『ZAC Seine Rive Gauche
Secteur Tolbiac』, 1993

베르시지구 계획(1988)

시행사 : SEMAEST
(파리시동부지역민관협동개발공사)
코디네이터 : 장피에르뷔피 (J-P.Buffi)

참고자료
SEMAEST & Jean-Pierre Buffi,
『Développement du Plan
d'Aménagement de Zone de
Bercy』

2) 공공공간

공공공간(public space)에 대한 논의에서 자주 인용되는 하버마스(Jurgen Habermas)에 따르면 공공공간은 소통과 갈등이 일어나는 공간으로서 한 사회의 삶을 반영하는 비물질적인(immaterial) 대상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도시계획가 장 피에르 샤르보노(Jean-Pierre Charbonneau)는 공공공간은 비물질적인 특성을 지니는 동시에 벤치, 가로수, 조명, 대지, 물, 지하구조물, 교통시설 등으로 구성되는 '구체적(concrete)'인 물리적 대상임을 강조한다.⁴⁵⁾

건축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공간이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하며, 따라서 이들이 공간환경디자인의 대상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공간을 이루는 가장 주요한 요소인 가로·공원·광장 외에 도시 경관을 이루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하부구조물(infrastructure)과 공간환경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인 디테일과 재료 항목을 추가하여 공간환경디자인의 적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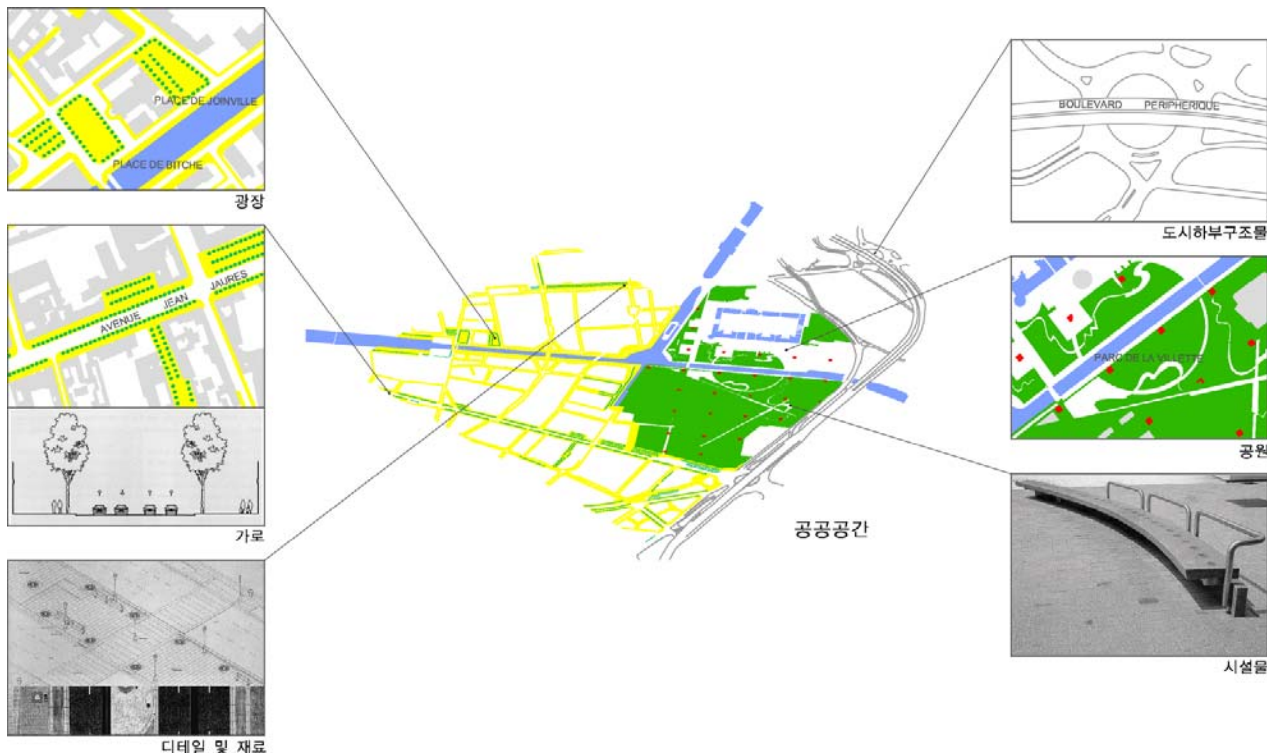


그림 2.34 공간환경디자인의 적용대상-공공공간

45) Jean Pierre Charbonneau, “예술과 공공공간’을 주제로 한 토론 중에서”, Paris La Sorbonne, 2007, 1,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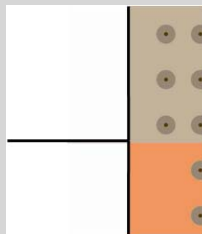
(1) 가로

가로는 자동차, 사람, 자전거 등이 이동하는 공간, 전기·가스·수도 등 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인 동시에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장이다⁴⁶⁾.

우리나라 공간환경의 현실

종합적인 계획과 운영체제 부재에 따른 불합리한 공공공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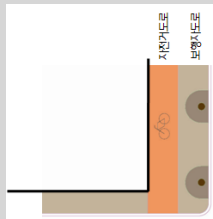
인접필지 사이의 단절 / 공공공간을 이용하는 다양한 계층에 대한 고려 부족



인접필지임에도 불구하고 보도 처리와 가로수 식재 원칙이 달라짐 : 공공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자인가이드라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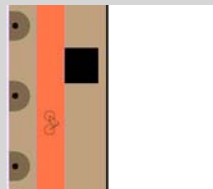
그림 2.35 안양시 국토연구원 주변 보도



자전거도로 설치와 가로수 식재로 안전하지 못한 보행공간 :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를 위한 공간은 없음



그림 2.36 안양시청 북측 보행자공간 현황



보행자 공간에 설치된 가로시설물 : 보행의 연속성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



그림 2.37 안양시청 서측 보행자공간 현황

평가

열린 접근성과 연계	×	시설물들의 부적절한 배치로 보행의 연속성 저해
안전성과 편안함	×	자전거와 보행공간에 대한 통합계획 부재
다양한 이용과 프로그램		
정체성 있는 이미지	△	위 사례가 위치한 지역은 안양시 공공미술프로젝트의 대상지로서 46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작품을 설치하였음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	다양한 가로시설물과 공공공간의 다양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체 및 계획 부재

46) 울프(Wolf)는 가로를 “다양한 의사소통, 교환, 교류가 높은 집중도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곳”으로서 정의하고 있다. Wolf, P. “Toward an Evaluation of Transportation Potentials for The Urban Street”, Anderson, S.(Ed.) 『On street』 (1978), p.189. 최윤경, 『7개의 키워드로 읽는 사회와 건축공간』 (시공문화사, 2003)에서 재인용.

기존 도로체계는 자동차 이용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점차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는 일상생활의 장으로서 ‘가로’에 대한 개념이 강조된다.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는 "보행자의 존재와 그들의 움직임은 도시의 가로를 활기차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주장하며⁴⁷⁾, 모든 제안의 초점을 가로의 활성화에 맞추고 있다. 가로는 공공공간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가로를 어떻게 조직하고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공간환경의 질이 결정된다.

가로

공간환경디자인 적용방안과 사례

□ 가로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

인천시 부평구 문화의 거리(1998-)

2007.12.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선정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간계획

참고자료
『일상장소 문화생활공간화
워크숍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림 2.38 인천시 부평구 문화의 거리



그림 2.39 대구시 동성로 공공디자인개선사업

대구시 동성로 공공디자인개선사업 (2007-)

주체: 문화체육관광부, 대구시, 중구
주관: 한국건축가협회 대구지회

참고자료
www.publicdesign.go.kr

인천시 부평구 문화의 거리는 부평 문화사거리에서 시장로터리에 이르는 폭 15m, 길이 270m의 도로로 1998년 보행자 전용도로화되어 10여년에 걸쳐 분수대 설치, 무대 및 관중석 설치 등 다양한 가로환경개선사업이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다. 대구시 동성로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가로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파리시 샹젤리제 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1989-1993)

발주: 파리시 도로교통국
설계: 베르나르위예(Bernard Huet)
예산: 약 375억원

참고자료
『Paris Projet N° 30-31』, 1993



그림 2.40 파리시 샹젤리제 거리(Paris Projet
N° 30-31, 1993)



그림 2.41 런던시 캔싱턴 거리

런던 캔싱턴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2003)

발주: The Royal borough of
Kensington and Chelsea
설계: Project centre Ltd

참고자료
www.cabe.org.uk

프랑스 파리시의 샹젤리제 거리는 도시를 상징하는 가로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부족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문제가 제기되어 1990년대 초 전면적인 가로개선사업을 시행하였다. 지하주차장 설치를 통한 가로변 주차 해결, 가로시설물 정비, 보도 재포장 등 사업을 통해 연속성 있는 보행 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 캔싱턴 거리는 런던 중심부로 이어지는 주요 상업도로 중 하나로서 1990년대 중반부터 경관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2003년 완공되었다.

47) Jane Jacobs,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1993).

(2) 공원

서양에서는 19세기부터 도시 내에서 공원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도시 스케일의 대규모 공원과 소규모 근린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삭막한 도시에서 정신질환에 시달리던 올스테드(Olmsted)가 뉴욕의 센트럴파크 계획을 수립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일상생활에 있어 공원은 휴식의 장소를 제공한다. 가로가 선적 공공공간이라면 공원은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면적 공공공간이며, 공간환경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원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짧고 양과 질은 아직 빈약한 실정이다.⁴⁸⁾ 그러나 최근 서울시는 하늘공원, 선유도공원, 서울숲 등의 공원을 통해 도시 환경의 질을 높이려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지방으로도 이어져 울산시의 경우 그 넓이가 364 ha에 이르는 울산대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와 휴식의 장소로 제공하였다.

우리나라 공간환경의 현실

대규모 공원 조성으로 시민의 여가·문화장소 제공
일상생활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소규모 근린공원은 부족한 실정



그림 2.42 서울숲광장
(<http://parks.seoul.go.kr/seoulforest/>)



그림 2.43 울산대공원
(<http://www.ulsanpark.com/>)

평가

열린 접근성과 연계	×	일상생활공간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도심 내 소규모 근린공원 부족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공공간 네트워크 구축 필요
안전성과 편안함	○	시민들의 여가와 휴식 장소로 활용됨
다양한 이용과 프로그램	○	대규모 공원의 경우 자연학습장, 문화시설 등 시설 풍부
정체성 있는 이미지	△	각각 공원에 대한 특성화 필요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	

48) “우리의 경우도 1883년 인천항이 개항되고, 각국의 공동조계가 설정되면서 조계 안에 공원을 조성한다. 지금의 자유공원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이다. …그러나 계획공원은 1970년대까지 아주 적었다. 1980년대 중반 경제가 성장하고 도시가 확장되면서 서울대공원, 한강시민공원, 올림픽공원, 일산호수공원, 용산가족공원, 여의도공원 등이 조성된다.” 최정민, “그림 같은 공원의 시작과 변화 그리고 우리의 공원”, 『텍스트로 만나는 조경』 (나무도시, 2007), p.83.

□ 도심부의 이전적지나 유휴지를 활용하여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원 조성

시애틀 올림픽 조각 공원(2007)

발주 : Seattle Art Museum and
Seattle Dpt. of Parks & Recreation
설계 : Weiss/Manfredi Architects
예산 ; 약 3천만 달러

참고자료
www.seattleartmuseum.org



그림 2.44 시애틀시 올림픽 조각 공원(Olympic Sculpture Park)

미국 시애틀의 올림픽조각공원은 철로 주위에 산업용지로 사용되던 약 3,6 ha(9 acre)의 대지를 시민들을 위한 도심 녹지 공간으로 변모시킨 사례이다. 시애틀 아트 뮤지엄(Seattle Art Museum)이 발주하였으며, 건축가 바이스·만프레디(Weiss·Manfredi architects)와 조경설계가 찰스 앤더슨(Charles Anderson)이 계획하였다. 외부공간에 알렉산더 칼더(Alexander Calder) 등 예술가의 작품을 설치하여 휴식 뿐 아니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파리시 꾸르 뒤 마룩 공원(2007)

면적 : 약 4,25ha
발주 : 파리시
설계 : 미셸 코라주
(Michel Corajoud)
예산 : 13,000,000 유로

참고자료
『Paris Projet N° 36-37』, 2005
www.paris.fr



그림 2.45 파리 18구 꾸르 뒤 마룩(Paris Projet N° 36-37, 2005)

꾸르 뒤 마룩(Cour du Maroc) 공원은 파리 북동부에 위치하며, 파리북역과 동역에 인접하여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파리는 북동부에 대한 재정비계획(Paris Nord-Est)⁴⁹⁾을 수립하고 이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계획에 있어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 확충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꾸르 뒤 마룩 공원 조성을 촉매로 하여 주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ex. Passage Goix) 4,25ha에 달하는 공원 조성으로 철로 변 열악한 공간들은 공원에 면한 최상의 주거 및 생활공간으로 변모하였다.

49) 파리북동부 재정비계획은 북역과 동역, 두 역에서 뻗어나가는 철로들 사이와 파리 북쪽 플랜 생드니 지역과의 경계를 포함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2002년 10월 이 지역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가 있었으며, 2008년 현재까지 순차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3) 광장

광장은 도시 안에서 사람들의 만남이 일어나고 다양한 관계가 형성되는 공간으로서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agora)부터 서양 도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⁵⁰⁾

우리나라 전통 도시에서 광장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마을길, 마당, 시장 등의 공간에서 사람들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한편, 공연 등 문화 활동의 무대가 되었다. 자동차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공간들은 점차 그 의미를 잃었으며, 이후 양적 성장 위주의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광장은 시민들의 정치적 집회의 장소로 인식되어 강력한 통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도시에서 시민들의 의식을 표출하고 다양한 문화행위가 일어나는 구심점으로서의 광장이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각 지자체에서는 도시의 정체성을 표출하고 시민들의 삶을 담은 그릇으로서의 광장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 공간환경의 현실

사회적·정치적·문화적 상징공간으로서의 광장 조성

문화재 주변부를 광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나 대부분 잔디를 조성해 공원화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광장은 공원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46 서울광장 (<http://plaza.seoul.go.kr>)



그림 2.47 송례문광장(www.news.naver.com)

평가

열린 접근성과 연계	△	도심부에서 접근 용이하나 타 공공공간들과의 연계 부족
안전성과 편안함		
다양한 이용과 프로그램	○	스케이트장, 루미나리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정체성 있는 이미지	×	대부분 잔디광장을 조성하며 디자인 수준이 낮음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50) “고대 그리스 도시에서 구심점은 도시광장이라 할 수 있는 아고라였다. 아고라 주변에는 법원과 관공서 등 공공시설이 위치했고 시민들의 회의나 교역이 이루어졌다. … 이런 문화를 계승한 고대 로마의 도시에서도 포룸(Forum)이 적극적으로 조성되었다.” 홍형순, “모든 길은 광장으로 통한다”, 『텍스트로 만나는 조경』 (나무도시, 2006), p.96.

□ 기존 광장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구심점으로서의 기능 회복

메헬렌시 그로트 마르크트 광장 조성(2002)



그림 2.48 벨기에 메헬렌(Mechelen)시 그로트 마르크트 광장(Grote markt) 조성



그림 2.49 벨기에 메헬렌시 그로트 마르크트 광장(<http://maps.google.com/>)

전통적으로 광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온 유럽 도시들의 경우에도 20세기에 들어와 자동차 이용이 증가하면서 도시공간의 구심점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인간성을 상실한 근대 도시에 대한 비판과 함께 도시 공간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광장을 재조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광장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광장이 가진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담아내는 장으로 탈바꿈하였다. 벨기에 메헬렌시⁵¹⁾ 중심에 위치한 그로트 마르크트 광장 역시 주차장을 지하화한 사례이다.

□ 계절 · 시간에 따라 다양한 이용이 가능한 다목적 광장 조성

파리시청앞 광장 보행공간화 사업(1982)

발주 : 파리지
설계 : Henry Bernard

참고자료
Simon Texier, 『Voies Publiques』, Picard, 2006

파리 플라주(Paris Plage, 2002-)

여름 일정기간 동안
센강변 고속화도로를 해변으로 꾸며
파리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여가 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

참고자료
Simon Texier, 『Voies Publiques』, Picard, 2006



그림 2.50 파리시 시청앞 광장(겨울)



그림 2.51 파리시 시청앞 광장(여름)

광장 조성을 위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고밀도시에서는 시간에 따라 다양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는 경우가 많다. 파리시 시청앞 광장의 경우 계절에 따라 스케이트장, 비치발리볼 경기장, 경주에 따라서는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자연학습장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51) 벨기에의 수도인 브뤼셀(Brussel)과 앤트워펜(Antwerpen)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며, 인구 7만 7천명, 면적 65km²의 소도시이다.

(4) 도시하부구조물과 그 주변

고가도로, 다리, 교차로 등 도로구조물은 규모가 매우 클 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접해 있으므로 도시 내에서 공간환경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과거에는 도로구조물에 대해서 그 기능적인 측면만 강조되었으나 최근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구조물 설계에 디자인이 적용되고 있다.⁵²⁾ 또한 고가도로 하부 공간 등 도로구조물 주변은 흔히 버려진 공간으로 인식되기 쉬우나, 이 공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고가도로, 다리, 교차로 외에 지하철, 철로, 주차장 등 또한 공간환경디자인의 대상에 포함되는데, 구조물 자체에 대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고려한 통합적 디자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공간환경의 현실

기능 위주의 도로구조물 설계로 공간환경의 질 저하

고가도로, 교차로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구조물이지만, 그 주변에는 위압적 환경이 조성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도로구조물 하부 및 주변 공간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림 2.52 서울시 광진구 건대입구역 부근



그림 2.53 서울시 잠수교 복단

평가

열린 접근성과 연계	×	도로구조물 때문에 보행공간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음
안전성과 편안함	×	보행에 대한 고려 부족으로 안전성 문제가 심각함
다양한 이용과 프로그램	×	대부분의 경우 도로나 하물 적치 공간으로 사용됨
정체성 있는 이미지	×	디자인 전문가가 배제된 기능과 효율 위주의 계획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52) 도시하부구조물의 디자인은 거대한 규모와 구조 때문에 흔히 도시경관을 해치는 요소로 여겨졌으나 20세기 후반부터 질 높은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이 중시되었다. 이를 위해 프랑스에서는 1977년 건축에 관한 법, 환경보호에 관한 법 등 공간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이 있었으며, 공공발주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조직인 MIQCP에서는 도시하부구조물의 기획, 발주, 설계, 시공, 관리 절차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 기존 도로구조물에 대한 미관 개선을 통해 장소의 가치 향상

무주군 사랑의 빛 거리 조성(2008)

발주 : 무주군청 문화관광과
예산 : 517,611,000원
시공사 : 대도건설



그림 2.54 무주군 남대천교 전경



그림 2.55 무주군 남대천교 위 조형물

사진은 무주군에 위치한 남대천교로 전국 현상 공모를 통해 디자인이 선정되었으며, 길이 120m, 폭 10m인 다리 위에 가로등과 교차등, 아치형 등 총 92개의 조형물을 설치하여 '사랑의 빛 거리'를 조성하였다.

□ 건축가, 조경설계가 등 민간전문가 설계로 도시하부구조물의 질적 향상

로테르담 에라스무스교(1996)

설계 : 벤 반 버클(UN Studio)

헤이그 트램역+주차장(Tram Station+Parking)(2004)

설계 : 렘 콜하스(OMA)

참고자료
Rem Koolhaas & Bruce Mau,
『S,M,L,XL』, Monacelli Press,
1995

네덜란드 A8erna 프로젝트(2005)

도로구조물 하부공간 개선사업
설계 : NL Architects
예산 : 2,700,000 유로

참고자료
www.urban.cccb.org



그림 2.56 네덜란드 로테르담 에라스무스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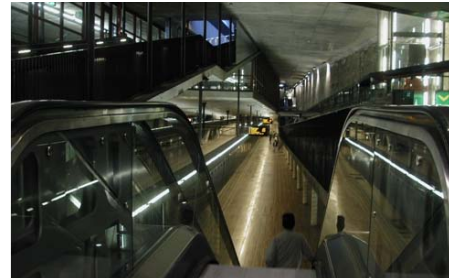


그림 2.57 네덜란드 헤이그 트램역+주차장



그림 2.58 네덜란드 A8erna 프로젝트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다리는 네덜란드 건축가 벤 반 버클(Ben Van Berkle, UN Studio)이 설계하여 도시의 명물로 자리잡았으며, 주차장과 트램 역 등을 복합적으로 계획한 헤이그의 지하공간은 렘 콜하스가 이끄는 OMA가 설계하였다. A8erna 프로젝트는 고가도로하부를 이용하여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변모시킨 사례로 NL Architects가 설계하였다.⁵³⁾

53) A8erna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의 p.73 참조.

(5) 시설물

공공공간에 설치된 가로시설물은 다양한 기능을 갖는다. 가로시설물에는 공공공간의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정보 제공을 위한 교통표지판,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한 신호등 및 교통신호기,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한 쓰레기통, 전기 공급을 조절하기 위한 배전반, 지하공간의 환기를 위한 환풍구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벤치 및 테이블, 자동차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볼라드와 경계석, 자전거를 보관하기 위한 자전거보관대 등 수많은 가로시설물이 존재한다.

이들 가로시설물의 배치와 디자인은 공간환경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 가로시설물에 대한 조성과 관리 주체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데에 많은 한계가 있다.⁵⁴⁾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신문가판대나 포장마차 등 노점상이 무계획적으로 가로를 점유하는 경우가 많아 가로환경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므로 이들에 대한 지침 수립과 사후 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공간환경의 현실

다양한 주체가 관여하는 시설물들에 대한 통합적 계획 부재로 인한 불합리한 배치 가로시설물들 간의 통일성 부족 / 낮은 디자인 수준

신호등, 쓰레기통, 교통신호기, 재활용수거함, 배전반 등 다양한 가로시설물에 대한 일관된 계획이나 지침이 부족하여 가로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



그림 2.59 안양시 안양역 부근 육교와 시설물



그림 2.60 안양시 국토연구원사거리 시설물

평가

열린 접근성과 연계	×	가로시설물의 불합리한 배치로 보행의 연속성 저해
안전성과 편안함	×	노점상, 배전반, 환풍구 등 시설물 난립
다양한 이용과 프로그램		
정체성 있는 이미지	×	디자인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시설물로 가로환경 저해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	시설물 종류에 따라 관리와 운영 주체가 달라 통합적인 관리와 운영이 부족함

54) 공공공간 개선을 통해 도시 이미지 제고에 성공한 사례로 꼽히는 프랑스 리옹시의 경우 공공공간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한편, 발주 단위를 일원화하고 책임 건축가를 임명하여 통합적 계획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관련 기능 복합화를 통한 가로시설물 통합디자인

무주군 공공건축 프로젝트
(1995-2006)



그림 2.61 안양시 롯데백화점 앞 가로시설물



그림 2.62 무주군 부남면 버스정류장

안양시 롯데백화점 앞 가로시설물은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한 사례이다. 휴지통, 벤치, 재떨이 등을 복합화 하여 점유 공간을 최소화하고 사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오른쪽 사진의 버스정류장은 건축가 정기용이 참여한 무주군 공공건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계되어 무주군 각지에 설치되었으며, 쉼터와 안내판, 벤치 등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시설물에 통합한 사례이다.

□ 도시 가로시설물에 통일성을 부여하여 공간의 연속성 확보

리옹시 가로시설물
국제현상공모(1990)

주관 : 리옹시
당선 : 장미셸빌모트,
프랑수아즈 엘렌 유르다/질 페로댕

참고자료
Annie Boyer, 『Aménager les
Espaces Publics』, Le Moniteur,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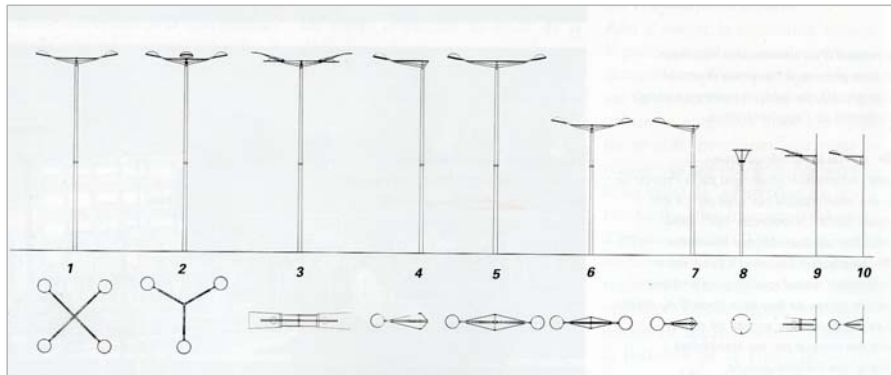


그림 2.63 리옹시 공공시설물디자인 국제 현상공모에 당선된 장미셸빌모트가 디자인한 가로등에 대한 10개의 모델(Annie Boyer, 1994)

프랑스 리옹시는 공공공간 디자인에 통일성을 부여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였는데, 이를 위해 시설물 카탈로그를 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1990년 가로시설물에 대한 국제설계경기를 개최하여 장미셸빌모트(Jean-Michel Willmotte)와 프랑수아즈 엘렌 유르다/질 페로댕(Françoise-Hélène Jourda & Gilles Perraudin)의 디자인을 선정하였다. 위 그림은 장미셸빌모트가 설계한 가로등 디자인으로 도로의 중요도와 그 규모, 필요한 조명의 조도에 따라 각기 다른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6) 디테일 및 재료

디테일과 재료⁵⁵⁾는 건축물과 공공공간의 질적 완성도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도시의 공간환경을 논할 때 흔히 언급되는 유럽 전통 도시의 통일성과 정체성은 대부분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사용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다.⁵⁶⁾ 최근에는 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가짓수가 매우 많아졌을 뿐 아니라 기술 발달로 특수한 기능을 가진 재료들이 다수 개발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디테일은 공간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다양한 재료들 사이의 조합방식을 결정하게 되므로⁵⁷⁾ 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공간환경의 현실

디테일 및 재료에 대한 세부 계획 부재에 따른 현장에서의 즉흥적 시공

보도와 같은 공공공간의 경우 구체적 계획 없이 최소한의 유지와 관리만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볼라드, 보도포장, 장애인 표지선 등 각기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는 시설물들이 무계획적으로 난립하게 되었으며, 그 점점의 디테일과 재료 처리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림 2.64 안양시청 부근 보도 디테일



그림 2.65 평촌 문화의 거리 이면도로

평가

열린 접근성과 연계	×	인접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디테일과 재료가 상이한 경우가 많으며 보행의 연속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됨
안전성과 편안함	×	현장에서의 즉흥적 시공으로 보행자의 안전성 저해
다양한 이용과 프로그램		
정체성 있는 이미지	×	지역과 장소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그 지역만의 정체성을 창출할 수 있는 재료와 디테일 개발이 필요함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	자전거도로, 볼라드, 장애인 표지선 등 다양한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디테일 계획과 관리 필요

55) “재료의 속성을 물성(materiality)이라고 한다. 재료의 물성은 재료의 객관적인 성격을 지칭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지각하고 느끼는, 재료의 느낌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김아연, “흙과 바람 사이의 모든 것”, 『텍스트로 만나는 조경』(나무도시, 2006), pp.184-185.

56) 근대 이후 철, 유리 등 공장에서 생산된 보편적 재료를 사용하면서 현대에는 도시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있다.

57) “단일한 재료로만 만들어지는 조경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여러 재료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하나의 공간이 형성된다.…또한 각각의 재료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결합방식을 요구한다.…그러나 이러한 고유한 결합방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조합방식을 찾아내는 것도 설계가의 고유의 권한이자 도전이다.” 위의 책, pp.188-189.

□ 디테일과 재료에 대한 구체적 계획으로 공간환경의 질적 완성도 향상

무주군 사랑의 빛 거리 조성(2008)

발주 : 무주군청 문화관광과
예산 : 517,611,000원
시공사 : 대도건설

정동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1998)

서울시 푸른도시국 녹지사업과



그림 2.66 무주군 남대천교 보도 포장



그림 2.67 서울시 중구 정동길 보도블록

왼쪽 사진은 무주군 남대천교 보도 포장 현황으로 무주군의 상징인 반딧불이를 표현하였다. 오른쪽은 서울시 중구 정동길 보도블록으로, 블록 하나하나에 서울시립미술관(구 대법원), 덕수궁, 러시아 공사관, 정동교회 등 주변의 주요 건축물을 표현하여 보행자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하게 하는 한편, 주변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밴쿠버시 그린웨이 계획(1995)

도시권 그린웨이계획과
근린생활권 그린웨이계획으로 나뉘
도시권 그린웨이계획은
도심지 내에 16개의 그린웨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참고자료
<http://vancouver.ca/engsvcs/streets/greenways/>

그림 2.68 캐나다 밴쿠버시 보도·녹지·식재
경계 부분 디테일그림 2.69 미국 포틀랜드 파이어니어 코트하우스
스퀘어

캐나다 밴쿠버시의 경우 녹지와 보행자 공간, 가로수 보호대 등이 만나는 접점에 대한 세심한 계획이 이루어졌다. 또한 시멘트로 마감한 보도에 낙엽 모양을 음각으로 처리함으로써 보는 이에게 즐거움을 제공한다. 오른쪽 사진은 미국 포틀랜드 파이어니어 코트하우스 광장(Pioneer Courthouse Square)⁵⁸⁾의 보도블록으로 광장 조성을 위해 기부금을 낸 시민들의 이름을 조각하였다. 이러한 디테일은 광장이 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급’ 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힘으로 조성되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

58) ‘포틀랜드의 거실(living room of Portland)’이라 불리는 파이어니어 코트하우스 스퀘어는 주차장으로 이용되던 대지를 광장으로 조성한 사례로서 1980년 전 미국을 대상으로 디자인을 공모하여 1984년 개장하였으며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도심 광장 사례로 꼽힌다. 파이어니어 코트하우스 스퀘어 준공과 함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시민단체가 출범하였다. www.pioneercourthousesquare.org

3) 경관

경관은 앞서 언급한 여러 요소들의 총합으로서 공간구조, 공공공간 등이 만들어내는 총체적 환경이다. 도시경관은 그 대상의 범위에 따라 크게 기본경관(기성시가지 대상)과 특정경관(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등)으로 나뉜다.⁵⁹⁾ 서울시 경관계획의 경우 이를 경관기본관리구역과 경관중점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경관의 유형을 자연녹지경관, 수변경관, 역사문화경관, 시가지경관으로 분류한다.⁶⁰⁾ 이 중 일상생활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은 시가지경관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과 관리를 통해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공간환경의 현실

경관에 대한 관심 부족과 계획 부재

도시 경관에 대한 고려 없이 우후죽순 들어선 건축물들이 만들어내는 혼재된 경관



그림 2.70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일대 전경



그림 2.71 안양1번가 가로경관



그림 2.72 안양시 동안구 평촌 문화의 거리 경관

평가

열린 접근성과 연계		
안전성과 편안함		
다양한 이용과 프로그램		
정체성 있는 이미지	×	지역의 자연·역사·문화 환경을 고려한 경관계획 필요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	경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필요함

59) 운영태 외, 『도시설계 전략으로서의 도시경관계획』, (한국도시설계학회, 2007).

60)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공청회 자료』 (2008)참조.

□ 시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관기본관리

파리시 지역도시계획(PLU, 2006)

역사문화경관과 녹지공간 보호를
통한 도시정비를 목표로 함

참고자료
www.paris.f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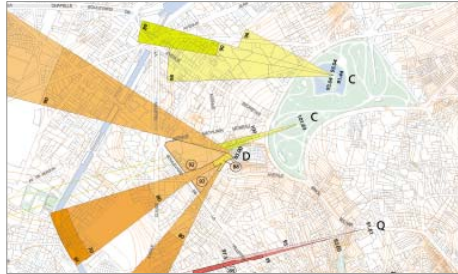


그림 2.73 파리시 지역도시계획(PLU) 상 후조 적용지역(www.paris.fr)



그림 2.74 파리시 지역도시계획 상 대상지역별 높이제한(www.paris.fr)

프랑스 파리시는 1977년 토지이용계획(POS)에서부터 조망경관보호를 위해 후조(Fuseaux)를 도입하였다.⁶¹⁾ 경관적으로 뛰어난 대지, 기념물, 투시도적 시야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법규상으로 그 지역에 적용되는 지침들과 관계없이 후조 원칙에 의해 지정된 지역은 그 높이나 건축 형태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이는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절대높이제한과 함께 파리의 역사적 경관을 보존하는 수단이 된다.

□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경관중점관리

송도국제업무지구 경관상세계획(2007)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여
3차원적으로 계획
건축물 뿐 아니라 공공부문까지
포괄적으로 계획대상을 다룸

참고자료
운영태 외,
『도시설계 전략으로서의
도시경관계획』, 한국도시설계학회,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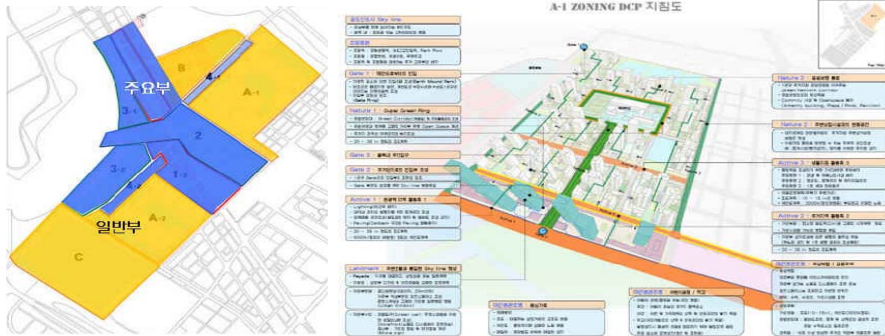


그림 2.75 인천시 송도 국제업무지구 경관존과 지침도(아키텍플랜, 2007)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경관기본계획은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의 경관계획이 가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상의 한계를 보완하며, 인천시 경관조례를 비롯한 기타 조례들의 내용을 존중하고 이를 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⁶²⁾ 그러나 법적 효력을 갖는 파리시 경관계획과 달리 비법정 계획이므로, 지구단위계획 등 법정계획 수립 시 체크리스트 역할을 함으로써 실효성을 갖게 된다.

61) 이 원칙은 지역도시계획(PLU, 전 POS)에 첨부되며 그림으로 표현, 설명된다. 이 외에 도시경관관리 수단으로 건축선 규정(fillets)을 두어 가로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62) 운영태 외, 『도시설계 전략으로서의 도시경관계획』 (한국도시설계학회, 2007), p.144.

III.

공간환경디자인의 실천방향과 사례

1. 우리나라 공간환경디자인의 현실과 원인
2. 공간환경디자인의 9가지 실천방향과 사례

(auri

공간환경디자인의 실천방향과 사례

1

우리나라 공간환경디자인의 현실과 원인

앞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우리나라 공간환경은 아직까지 열악한 상황이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공간환경의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간환경디자인이 추구해야하는 기본적인 실천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우리나라 공간환경디자인의 현실

먼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공간환경디자인의 문제점들을 짚어보면, 그 첫째는 편안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은 공간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적 이익과 행정의 편리함이 우선시 되면서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보행권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공간환경, 어린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배제된 공간을 우리 주변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림 3.1 보행권이 무시된 공간환경디자인

두 번째는 기능 중심의 획일적인 방식으로 공간환경을 조성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하거나 특색 있는 도시 공간의 형성이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그림 3.2 지역성이 없는 획일화된 공간환경디자인

세 번째는 본질적인 개선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공간환경디자인이다. 직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질적인 원인을 찾아 개선하기 보다는 일종의 화장술 같은 표피적 개선사업을 진행하여 실질적인 사업의 성과를 얻지 못하거나 과도한 시설물 설치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기도 한다.

네 번째는 공급자 위주의 공간환경 조성으로 주민과 밀착된 생활공간의 확보가 미흡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실제 수요자들의 요구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아서 많은 비용을 들여 멋지게 만들어 놓은 공공공간은 쉽게 접근하거나 찾아가기 어렵고,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환경은 아예 사람들에게 인식조차 되지 못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버려진 곳들도 있다.



그림 3.3 일상생활과 밀접하지 못한 공간환경디자인

다섯 번째는 공공성이 부재하거나 주변 환경과 관계 맺지 못하는 공간환경 디자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은 결국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이용이 제한되어 궁극적으로는 이용자들에게 버려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에 공공건축물의 경우 권위적인 디자인,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 선정 등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림 3.4 고립된 입지 조건으로 이용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공건축물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고려가 없는 공간환경디자인이다. 공간 환경의 개선사업 완료 이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일시적인 이벤트로 그치고 결국에는 다시 열악한 이전의 상황으로 원상 복귀하는 공간환경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존재한다.



그림 3.5 관리가 고려되지 않은 공간환경디자인

2) 열악한 공간환경디자인의 원인

앞에서 지적한 이러한 열악한 공간환경디자인의 원인을 공간환경디자인의 진행 과정상에서 분석해보면, 먼저 기획이나 구성단계에서는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보다는 시각적인 미관개선에 중점을 두는 접근방식, 통합적이고 총체적이기 보다는 기능 또는 담당 부서에 따라 개별적, 요소적으로 개선하는 방식, 시민의 요구보다는 관주도적으로 일방적인 사업추진과정 속에서 획일적으로 반복되는 사업방식을 지적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해나가는 단계에서는 더 복잡하고 많은 원인들을 찾을 수 있다. 관련 부서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단절된 행정시스템, 전문가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가 제한된 폐쇄적 시스템, 형식적인 주민 참여,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협력할 수 있는 디자인 거버넌스 부재로 실행주체나 사업의 지원조직이 불분명함, 그리고 과정보다는 완성된 결과물 중심의 사업진행 방식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지관리의 단계에서는 공간환경디자인의 결과에만 관심을 두고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 관리와 운영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각 단계에서 지적된 여러 원인들의 근원에는 공간환경디자인에 관여하는 여러 이해당사자들- 지역 주민, 관련 이익단체, 행정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 사이에 좋은 공간환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환경디자인의 문제와 그 원인을 토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앞으로의 실천방향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그림 3.6 열악한 공간환경디자인의 원인과 실천방향

먼저 기획 및 구상단계에서 시각적인 개선에 치우친 접근 방식은 장소의 가치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접근으로, 개별적 요소 중심의 디자인 개선방식은 지구 또는 도시 전체에 대한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방식으로, 행정이 중심이 되어 제한된 모델을 가지고 진행하는 획일적인 사업은 발상의 전환에 의한 창조적인 접근으로 기본적인 방향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실행단계에서는 관련 업무간 협의가 없는 칸막이식 진행방식 대신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방식, 제한된 전문가의 참여를 전문가의 적절한 활용으로, 형식적인 주민 참여를 적극적인 참여로, 디자인 거버넌스의 부재는 다양한 주체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단기적 성과를 얻기 위한 결과중심적인 사업진행은 과정을 중시하는 점진적 사업 추진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유지관리단계에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시스템의 구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9가지 실천방향은 공간환경디자인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지켜야할 기본원칙이며, 이것은 기본공간환경디자인의 중요한 특성인 협력적 디자인, 총체적 디자인, 프로세스 디자인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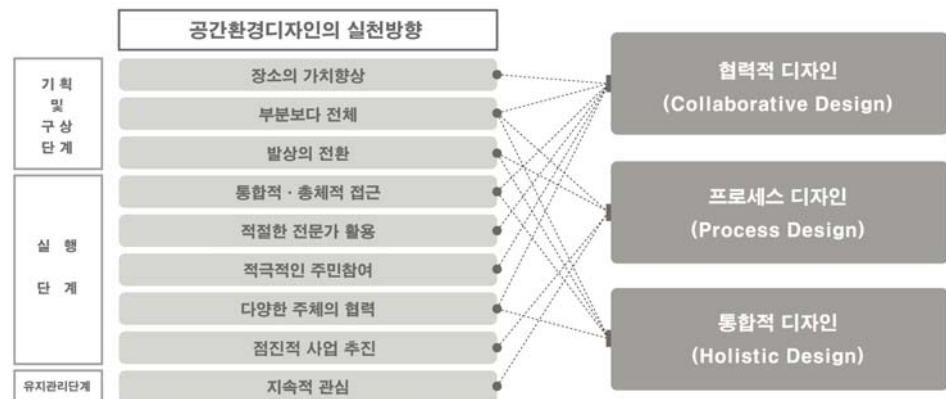


그림 3.7 공간환경디자인의 실천방향

공간환경디자인의 9가지 실천 방향과 사례

2

1) 장소의 가치 향상

공간환경디자인의 목적은 디자인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공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도 있다. 좋은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한 고민의 출발은 ‘어떤 디자인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공간에 담을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



그림 3.8 코펜하겐의 낡은 항구를 따라 늘어섰던 과거의 선술집들은 오늘날 값싼 레스토랑으로 변신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들이고 있다. ‘코펜하겐 재즈 페스티벌’이 열리는 매년 여름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가득 메운다.

실천방안 #1.

- 장소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 주변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그와 연관된 콘텐츠를 활용**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대상 **지역민들과의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대화**가 필수적이다.
- 대상 지역에 기반을 둔 **주민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교류**한다면 대상지의 장소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장소의 가치향상

부분보다 전체

발상의 전환

통합적 · 총체적 접근

적절한 전문가 활용

적극적인 주민참여

다양한 주체의 협력

점진적 사업 추진

지속적 관심

기획
및
구상

실행

유지
관리

■ 개요

- 사업대상지 : 전주시 완산구 전동3가 남부시장 2동 옥상 공간 약660㎡
- 사업기간 : 2007. 4. ~ 2007. 11.
- 사업주관 : 공공작업소 심심, 전주청소년문화예술교육단
- 참여주체 : 상가주민, 건축가, 목수, 미술가
- 사업내용 : 시설물 제작, 녹지환경 개선, 작가참여를 통한 공간디자인



그림 3.9 하늘정원 모습(공공작업소 심심)



그림 3.10 벽화 꾸미기(공공작업소 심심)



그림 3.11 하늘정원에서 열린 국수음악회(전라도닷컴)



그림 3.12 남부시장 그림지도(전라도닷컴)

과거에는 호남 최대의 물류시장이었지만 국내의 여느 재래시장과 마찬가지로 쇠퇴의 길을 걷게 된 전주 남부시장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지원을 받아 아케이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역설적 이게도 재래시장을 살리고자 설치한 이 구조물이 옥상공간을 점령하면서 시장 건물들 사이를 연결하는 길은 차단되고 옥상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마저 떠나면서 버려진 공간이 되어버렸다. 이후 공공작업소 심심, 전주청소년문화예술교육단, 시장번영회 등의 사람들이 모여 옥상의 빈 점포건축물과 유휴지를 활용하여 휴식과 전시 및 공연 등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공간 개념으로서 하늘정원을 조성하였다.

■ 시사점

건물의 버려진 공간을 활용한 입체적 공공공간의 창출, 새로운 기능 부여를 통한 장소 재생

참고자료 및 관련단체

- 공공작업소·전주청소년문화예술교육단(2007), 『하늘정원 만들기』
- 전주청소년문화예술교육단(2008), 『남부시장 재구성프로젝트-다락방』
- 공공작업소 심심 홈페이지
www.simsim.or.kr

사례2

부평 한평공원

■ 개요

- 사업대상지 :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
- 사업기간 : 2007. 7.
- 사업주체 :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도시연대), 부평 문화의 거리 발전추진위원회, 부평 문화의 거리 노점상연합회, 부평구청, 신한은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업내용 : 화단, 자전거 보관소, 조명탑 설치



그림 3.13 한평공원 대상지(김은희외, 2007)



그림 3.14 한평공원 조성 모습(국민일보)



그림 3.15 한평공원 현재 모습



그림 3.16 자전거 보관소(김은희외, 2007)

한평공원은 버려진 한평의 땅에 벤치를 놓고 화단에 꽃을 심어 공원처럼 가꾸는 도시미화사업이 아니라 버려진 한평을 새로 가꾸는 과정에서 남에 대해 시선을 돌리고 그 시선을 통해 타인이었던 이웃을 만나고 이웃들과 함께 동네를 만들고 가꾸는 일을 의미한다.⁶³⁾

1996년 부평시장을 살리기 위해 자비를 털어 문화의 거리를 조성했던 상인들은 대형마트가 연속적으로 들어서는 위기 속에서 한평공원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상인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쉼터와 자연공간으로서의 화단, 보행과 자전거 문화의 거점을 위한 소규모 자전거 보관소, 주민들이 거리의 흥물로 지적인 배전반을 활용한 조명탑이 설치되었다.

■ 시사점

일상공간에 대한 관심과 작은 변화를 통해 장소의 공유와 이웃의 교류를 실천

참고자료 및 관련단체

- 김은희 외(2007), 『주민참여를 통한 한평공원 만들기』,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
-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www.dosi.or.kr

63) 김은희 외, 『주민참여를 통한 한평공원 만들기』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 2007), p.8.

2) 부분보다 전체

통합적 계획이 전제되지 않은 개별적 공간환경의 조성은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통합적 계획은 공간환경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정책과 구체적인 실천전략에서 출발하여 이를 관리하는 계획에 단계적으로 반영되어 장기적인 계획의 틀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림 3.17 강서구 마스터플랜. 강서구의 전반적인 공간구조의 '틀'을 형성하는 요소들-오픈스페이스 체계, 용도의 배분, 교통의 체계-에 대한 계획개념과 각각의 계획개념을 '마을 권역' 단위로 종합하여 마을권역별 계획목표를 다룬다. 이는 도시를 평면적이 아닌, 3차원적인 체험공간으로 관리하고 가꾸고자 하기 때문이다.(살고싶은 도시 강서구 발전계획, 2008)

실천방안 #2.

-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도시 전체에 대한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공간환경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 **경관기본계획**과 **공원녹지기본계획** 역시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계획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경관 향상**과 **공원녹지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건축기본법**에 의한 **지역건축기본계획**을 활용하여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기획 및 구상	장소의 가치향상
	●부분보다 전체
	발상의 전환
실행	통합적 · 총체적 접근
	적절한 전문가 활용
	적극적인 주민참여
	다양한 주체의 협력
	점진적 사업 추진
유지 관리	지속적 관심

사례3

영주 마스터플랜

■ 개요

- 기간 : 2008. 1. ~ 12.(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기본과제 『가치향상을 위한 공공건축 통합화 방안 연구』 일환으로 추진)
- 주요내용 : 공간환경 통합 마스터플랜 및 공공건축가 역할 시뮬레이션
- 공공건축가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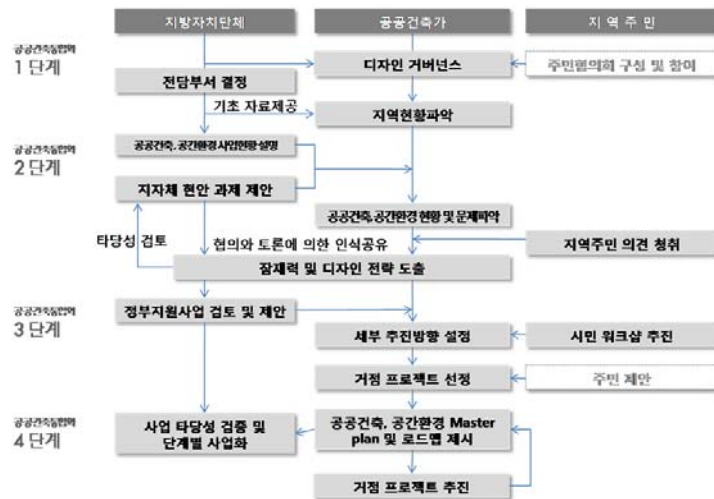
그림 3.18
영주시
공간환경디자인
추진과정Phase 1.
Dispersion & Separation
지역의 컨텍스트 찾기Phase 2.
Sector, Place, Public Space
장소의 가치, 의미 설정Phase 3.
Integration by Band, Network
장공간 점, 선 면의 네트워크Phase 4.
Integration by void-scape
미래를 위한 공간의 통합화

그림 3.19 통합 마스터플랜 개념설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공간환경의 가치 향상을 위한 통합적 마스터플랜 작성과 공공건축가 역할 시뮬레이션을 위해 인구 10만 내외의 지방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를 조사하였고, 도시 관련 담당부서와 시장 면담을 통해 영주와 제천을 선정하였다. 영주의 공간환경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건축의 공공성 부재, 통합된 도시환경을 고려하지 못하는 각종 사업, 칸막이식 행정체계에 의한 통합관리 및 사업 연계 부재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어서 영주시의 잠재력과 디자인 전략을 도출하고 공간환경의 통합을 위한 거점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 시사점

공공건축의 통합적 마스터플랜 수립과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기성시가지 활성화 도모

참고자료 및 관련단체

- 조준배 외(2008), 『장소의 가치향상을 위한 공공건축 통합화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김주영(2008), “지역 공공건축 통합관리를 위하여 - 영주시를 중심으로”, 『제6차 공공건축설계포럼』 자료집

사례4

프랑스 리옹의 광역계획(SCOT), 지역도시계획(PLU), 지속가능한 개발계획(PDU)

■ 개요

- 광역연대계획(SCOT : Schema de Coherence Territoriale)
 - 주거와 업무, 상업 간의 균형을 이루고 교통과 공공시설에 대한 배치 검토, 공간환경에 대한 전략계획
- 지역계획(PLU : Plan Local d'Urbanisme)
 - 역사문화유산과 녹지공간 보호를 통한 도시정비, 경제활성화와 고용 창출, 계층간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 연대 강화
- 지속가능한 개발계획(PADD : Plan d'Amenagement du Developpement Durable)
 - 공공공간 계획, 새로운 개발지구에 대한 전략 등 도시 전반의 발전방향 제시
- 도시이동계획(PDU : Plan de Deplacement Urbain)
 - 자동차도로, 보행자도로, 자전거 도로 등 다양한 이동수단에 대한 통합적 계획



그림 3.20 리옹시 페로 광장(Place des Terreau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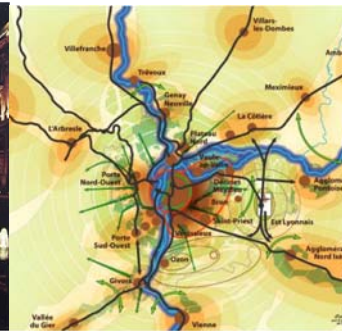


그림 3.21 리옹시 SC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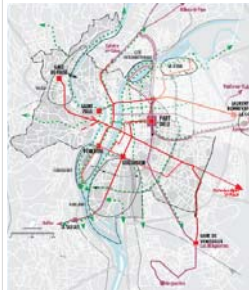


그림 3.22 접근성향상
구상도(리옹시PADD, 2007)



그림 3.23 도시이동계획상
공공공간체계 구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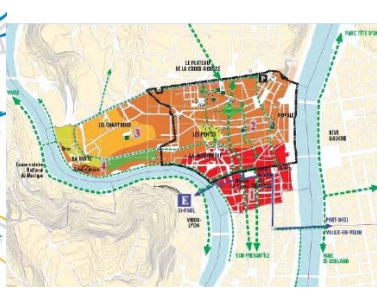


그림 3.24 리옹1구의 지속가능한개발
기본구상도

참고자료 및 관련단체

- 리옹시 홈페이지 www.lyon.fr
- 리옹시 도시설계원 홈페이지
www.urbalyon.org
- Jan Gehl, Lars Gemzoe(2000),
『New City Space』, The
Danish Architectural Press

리옹은 1980년대 초부터 공공공간 개선 사업을 통한 도시 이미지 및 도시경쟁력 향상에 힘써왔다. 1989년부터 2000년까지 리옹시 도시계획 담당 앙리샤베르(Henry Chabert)는 공공공간 개선을 통한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바르셀로나를 벤치마킹하여 도시의 인간적인 면모를 되찾기 위해 공공공간 개선 정책을 펼쳐왔다. 공공공간 개선 사업은 단기적 요구에 따른 일회성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광역계획, 지역도시계획, 지속가능한 개발계획 등에서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된다.

■ 시사점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적 계획에 근거한 체계적인 공공공간 개선 사업

3) 발상의 전환

종종 공간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가장 열악한 공간이 공간환경 개선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 “그건 불가능해” 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일 뿐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공간환경디자인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림 3.25 선유도 공원은 원래 서울 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던 정수장이었다. 기능을 다한 정수장 시설의 흔적을 보존하고 재생하여 산책로 등 휴식 공간뿐만 아니라 생태 체험장이나 교육장 등 환경과 조화되는 다양한 공간계획이 세밀하게 반영되어다는 점을 인정받아 “이 달의 건축환경문화”에 선정되기도 했다.(엔씨이버)

실천방안 #3.

- 기존 도시에서 버려지거나 저활용되는 공간들은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공간이므로 이들에 대한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현황 조사를 통해서 버려진 공간이나 저활용되는 공간들에 대한 목록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 잠재력이 큰 공간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용지를 확보하여 직접 공간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예산 부족으로 직접 개입이 어려운 경우에도 버려진 공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장소의 가치향상

부분보다 전체

●발상의 전환

통합적 · 총체적 접근

적절한 전문가 활용

적극적인 주민참여

다양한 주체의 협력

점진적 사업 추진

지속적 관심

기획
및
구상

실행

유지
관리

■ 개요

- 사업위치 : 파리 북쪽 플랜 생드니 지역
- 조경가 : 미셸 코라쥬(Michel Corajoud)
- 사업규모 : 길이 1,3 km, 너비 38m, 면적 약 5ha
- 사업내용 : 고속도로 상부에 인공대지 조성 공원화 사업



그림 3.26 플랜 생드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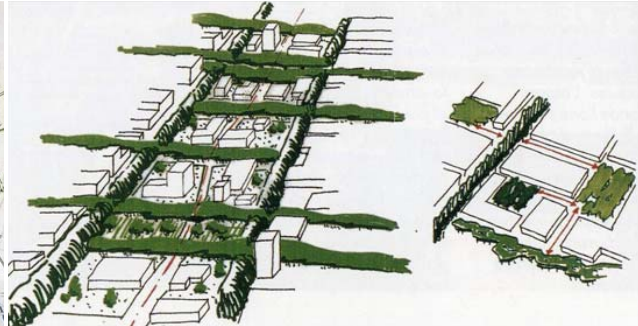


그림 3.27 프로젝트 개념도



그림 3.28 (좌)1960년대 개통된 고속도로A1, (우)인공대지 위에 조성된 공원

플랜 생드니 지역은 생드니 운하를 따라 공업지대가 형성되었으며, 프랑스 북부로 향하는 고속도로 A1이 관통하여 소음과 매연 문제 뿐 아니라, 고속도로로 인한 단절 문제가 심각하였다. 이에 고속도로 위에 인공 대지를 조성하고 이를 공원화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인공대지로 덮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을 조성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필연적으로 외곽순환도로가 관통하는 경우에도 거대한 도로구조물을 간소화하고 보행 공간을 확보하였다. 이제 외곽순환도로와 그를 둘러싼 공간은 도시를 단절시키는 요소에서 융합의 역할을 하는 매개체로 변화하였다.

■ 시사점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각종 문제를 야기하던 공간이 지역 생활의 중심 공간으로 변모

참고자료 및 관련단체

- 플랜 지역 광역자치체 홈페이지
www.plainecommune.fr
- 일드프랑스도시설계원
www.iau-idf.fr
- Ariella Masbounji(2002),
『French Urban Strategies』, Le Moniteur

사례6

에이8에르나(A8erna, Zaanstadt, Netherlands)

■ 개요

- 위치 : Zaanstadt, Netherlands
- 사업성격 : 도로구조물 하부공간 개선사업
- 사업시기 : 2003년 사업 시작, 2004년 공사 시작, 2005년 준공
- 건축가 : NL Architects
- 사업면적 : 24,000 m²
- 사업비 : 2,700,000 유로
- Site manager : Zaanstad PM Dienst Stad



그림 3.29 전체 사업에 대한 3차원 계획도면(NL Architects)



그림 3.30 사업 전 모습(NL Archit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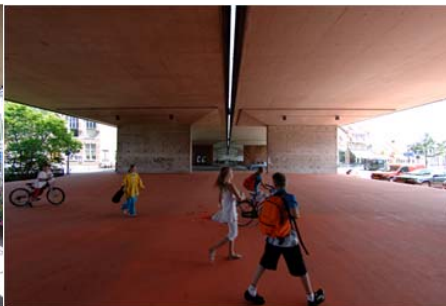


그림 3.31 사업 후 청소년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습(NL Architects)

Koog aan de Zaan은 암스테르담 북동쪽 약 11km 지점에 위치하며 잔(Zaan)강에 면한 인구 약 14만 명의 작은 도시이다. 1970년대에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로 강변을 따라 고밀 지역이 형성되었으며 동시에 고속도로 A8이 건설되었다. 시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A8 하부로는 고가도로를 지지하기 위한 7미터 높이의 거대구조가 들어섰다. 30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고속도로 하부의 너비 40m, 길이 약 400미터의 공간은 아무렇게나 주차된 차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 공간에 카페, 운동시설 등을 배치함으로써 어두운 고가도로 하부 공간은 인근 주민들의 삶의 공간으로 탈바꿈하였으며, 2006년 유럽의 '공공공간디자인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 시사점

흔히 방치되기 쉬운 도시하부구조물 주변 공간에 대한 적극적 디자인과 프로그램 도입

4) 통합적·총체적 접근

사람들은 공간환경을 영역의 구분 없이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데에 반해, 공간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은 영역별로 독립되어 있다. 현재의 칸막이식 행정 체계로는 커뮤니티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 다양한 기능, 다양한 공간에 대해 통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3.32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위 그림은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시의 도심부 디자인 가이드라인(Central City Fundamental Design Guideline)의 서두 부분에 삽입된 것이다.

기획 및 구상	장소의 가치향상
	부분보다 전체
	발상의 전환
실행	●통합적·총체적 접근
	적절한 전문가 활용
	적극적인 주민참여
	다양한 주체의 협력
	점진적 사업 추진
유지관리	지속적 관심

참고자료 및 관련단체

- Zaanstadt 지자체 홈페이지
www.zaanstad.nl
- www.urban.cccb.org

실천방안 #4.

-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부서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중요 사업의 경우 TFT를 구성**하여 협력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 인접한 대상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병행될 경우, **관련 부서 간 일정 및 예산에 대한 계획을 조정하여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공통의 해답을 찾아야 한다.**
- 도시디자인 부서를 중심으로 공간환경과 관련된 계획 및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사례7

금산 다락원⁶⁴⁾

■ 개요

- 위치 :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금성면 일대
- 사업기간 : 2000. ~ 2004.
- 사업비 : 310억원(국비 97억원, 도비 17억원, 군비 175억원, 기타 21억원)
- 규모 및 시설 : 지하 1층, 지상 3층, 생명의 집(공연장), 건강의 집(보건소), 만남의 집(사무실), 문화의 집(문화원), 장애인의 집, 노인의 집, 스포츠센터 등



그림 3.33 금산 다락원 전경(금산 다락원 홈페이지)



그림 3.34 생명의 집(공연장) 내부 홀 모습



그림 3.35 노인의 집, 여성의 집 등을 잇는 중앙 내부가로 모습

금산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복지 시설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당시 7개 중앙부처(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부, 행정자치부, 농업진흥청, 마사회,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12개 단위 사업 예산을 하나로 결집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기로 하였다. 금산군 담당부서 공무원 7명이 동시에 재정지원을 신청하고 문화관광과가 주무부서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에 지원받은 시설지원금은 모두 문화관광과로 이관하고 다락원의 설계발주에서 준공, 운영관리까지 전담하였다. 부처 마다 지원시기가 일정하지 않고 예산지원 조건 대부분이 독립된 건물을 건립토록 되어 있으며,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강당, 회의실 등 특정 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각 예산지원에 따른 시설을 분절시키되 1층과 2층에서 공용공간을 브리지로 연결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각 중앙부처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 시사점

공공시설의 통합화를 통해 시설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예산 절감 실현

참고자료 및 관련단체

- 서수정 외(2008), 『공공건축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금산다락원 홈페이지
www.daragwon.com

64) 서수정 외, 『공공건축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방안』(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8)을 참고.

파리 녹색지구(Quartier Vert Faubourg St. Denis)

■ 개요

- 2002-2003 정비 1기 사업 : 포부르 드느(Faubourg St. Denis)街에 보행도로화, 보도 확장, 가로수 식재, 자전거도로 신설, 2륜차 주차공간 마련, 일방통행
- 2004-2005 정비 2기 사업 : 30km/h 지역 확대 실시, 일방통행, 2륜차 주차공간 확충, 보도 안전 강화
- 예산 : 5,418,000 유로
- 발주자 : 파리시(Ville de Paris)



그림 3.36 포부르 생드니 지역에 대한 통합적 계획도. 파리시 전역에 걸쳐 36개의 녹색지구 계획 수립. 사업 추진 중



그림 3.37 포부르 생드니 지역 자동차순환체계



그림 3.38 포부르 생드니 지역 사업 후 모습

포부르 생드니 지역은 고밀도의 주거지역인 동시에 상업 밀집 지역이다. 또한 파리시 주요 도로들의 교차 지점으로 교통량이 매우 많고 보행자 환경은 열악하였다. 주차시설 부족으로 불법주차 사례가 많았으며, 주변에 다수의 학교가 있어 교통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녹색지구는 파리시이동계획의 일환으로 일상생활의 터전이 되는 근린생활권을 대상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간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계획, 공공공간 개선, 상업활성화 등에 대한 통합적 고려를 바탕으로 자동차 이동 방향, 대중교통 현황, 보행자 도로 이용 현황 등에 대한 총체적 교통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보도 확충, 자전거 도로 개선 등 보행자 우선 계획 수립과 가로수 식재, 가로 녹화, 공공공간 개선 사업 등도 동시에 추진한다.

■ 시사점

다양한 영역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문의 개입으로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도모

참고자료 및 관련단체

- 파리시 홈페이지 www.paris.fr
- 파리시도시설계원 홈페이지 www.apur.org
- Simon Texier(2006), 『Voies Publiques』, Picard

5) 적절한 전문가 활용

창조적 아이디어의 제공자,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의 적용자, 사업의 기획자, 계획의 수립자로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문가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고, 좋은 공간 환경에 대한 고민을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3.39 2008년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공공건축을 통해 지역의 장소적 가치향상과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 혹은 코디네이터의 입장에서 영주와 제천을 대상으로 시범연구를 실시하였다.

실천방안 #5.

- 공간환경의 본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공간환경과 관련된 계획 및 정책 수립에 있어 자문 역할을 하는 지속적인 자문 조직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연구협약** 등의 형태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건축기본법 제18조**에서는 **‘지역건축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전문가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 **건축기본법 제23조**에 의해 **중요 사안에 대해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업무의 일부를 진행 및 조정할 수 있다.

장소의 가치향상

부분보다 전체

발상의 전환

통합적 · 총체적 접근

●적절한 전문가 활용

적극적인 주민참여

다양한 주체의 협력

점진적 사업 추진

지속적 관심

기획
및
구상

실행

유지
관리

■ 개요

- 사업기간 : 1995~2006
- 시설종류 : 무주군청사 리모델링, 등나무 운동장, 농업인 회관, 청소년 문화의 집, 무주시장 현대화 사업 등 30여개
- 총괄건축가 : 정기용
- 총괄건축가의 역할 : 설계자로서 참여



그림 3.40 무주군청



그림 3.41 부남면 주민자치센터



그림 3.42 등나무운동장



그림 3.43 곤충박물관

1995년 당시 인구감소와 지역상권 약화 문제에 직면한 김세웅 무주군수는 지역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우연한 기회에 건축가 정기용을 만나게 되었고, 군수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지역성을 중시하는 정기용의 건축관이 결합하여 이후 10여 년간 공공건축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정기용은 면사무소를 계획하면서 지역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찾아 나섰고, 그 결과 목욕탕과 보건소의 기능이 합쳐진 ‘안성 면민의 집(주민자치센터)’이 탄생하였다. 부남면사무소에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별에서 힌트를 얻어 미니 천문대를 설치하였고, 차량으로 뒤덮여 있던 무주군청사의 뒷마당은 주민들을 위한 공용마당으로 변신시켰다.

■ 시사점

사회적 코디네이터로서 민간 전문가의 활용을 통한 수요자 위주의 공공건축 실현

참고자료 및 관련단체

- 정기용(2007), “공공건축과 건축가의 역할”, 『제1차 공공건축설계포럼』 자료집
- 서수정 외(2008), 『공공건축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정기용(2008), 『감응의 건축』, 디자인플러스

사례10

구마모토 아트폴리스(KAP)⁶⁵⁾

■ 개요

- 사업기간 : 1988. ~ 현재
- 시설종류 : 경찰서, 전통인형극장, 휴게소 화장실 등 74건
- 총괄건축가 : 커미셔너 (현재 3대째)
- 커미셔너 역할 : 건축가 선정, 프로젝트 기획참여, 워크숍 개최, 신진건축가 발굴 등
- 사업추진 전담조직 : 구마모토현 토목부 경관개발과에 사무국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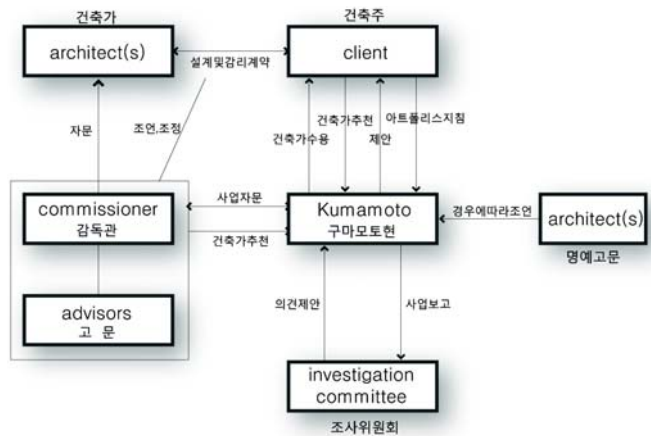


그림 3.44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사업추진조직



그림 3.45 구마모토 아업다섯반 사무소



그림 3.46 다마나 전망관



그림 3.47 구마모토 기타 경찰서

급격한 산업화의 부작용으로 미니마타병이 발생하면서 지역이미지가 실추되는 사건을 겪은 구마모토현의 지사 호소가와는 베를린국제 건축전 방문을 계기로 공공건축물을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한 아트폴리스 사업을 발족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사는 아라타 이소자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를 초대 커미셔너로 선정하여 KAP 사업 전반의 기획과 각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건축가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현재는 3대 커미셔너가 활동 중이다. 또한 일관된 사업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인 사무국을 설치하여 사업전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건축, 토목, 문화, 경제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어드바이저(adviser) 위원회가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의제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

■ 시사점

커미셔너가 추천하는 젊고 유능한 건축가들의 참여를 통해 개성있는 도시건축 창조

참고자료 및 관련단체

- 구마모토현 홈페이지
www.pref.kumamoto.jp
- 서수정 외(2008), 『공공건축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배춘규(2007), “공공의 또 다른 신 세계를 꿈꾸며”, 『일본경제 공공 디자인으로 다시 살아나다』, 가인

65) 서수정 외, 『공공건축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방안』(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8)을 참고.

6) 적극적 주민참여

기획 및 구상	장소의 가치향상
	부분보다 전체
	발상의 전환
실행	통합적 · 총체적 접근
	적절한 전문가 활용
	●적극적인 주민참여
	다양한 주체의 협력
	점진적 사업 추진
유지관리	지속적 관심

어떤 공간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그 지역 주민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주민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들 삶의 소소한 부분까지 알고 있으며, 이 살아있는 정보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와 대안을 찾아가는 발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주민들이 소극적인 참여에서 벗어나 공간 환경의 주인이자 공간환경디자인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림 3.48 2005년 봄, 성미산 마을의 주민들은 마을축제를 열기 위해 차량진입을 막고 아이들에게 잠시나마 차 없는 골목길에서 뛰어노는 즐거움을 선사하였다.(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 홈페이지)

실천방안 #6.

- 주민들은 대상 지역에 대해 가장 핵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므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위해서는 공청회 등을 통한 형식적 참여가 아닌 워크숍이나 디자인 샤레트(Design Charette)등 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
-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공간환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필요할 경우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공간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을 향상시키고 **좋은 공간환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사례11

성미산 마을 만들기

■ 개요

- 위치 : 서울시 마포구 성산1동 일대
- 마을의 역사
 - 1994~2000 : 한국 최초의 공동육아협동조합 설립, 공동육아를 고민하던 사람들이 모여살기 시작
 - 2000~2003 : 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 설립
 - 2003~2005 : 마포연대(시민단체), 성미산학교(대안학교), 마포공동체라디오방송국 등 다양한 영역으로 주민활동 확대
 - 2005~현재 : 성서한평공원만들기(2006),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시범마을사업 선정(2007)



그림 3.49 성서 한평공원(도시연대,2006)



그림 3.50 골목길 축제(마포두레생활협)



그림 3.51 한평공원 만들기를 위한 디자인 워크숍(도시연대,2006)

성미산 마을은 공동육아를 위해 어린이집을 만들고 공동체 생활을 고민하던 사람들이 이 지역에 모여 사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부문으로 관심이 확장되었고, 주민 스스로 동네의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들이 생겨났다. 2006년에는 성서초등학교 후문의 버려진 공간을 한평공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 시민단체가 모여 주민홍보, 성서초등학교 학생들과의 디자인 워크숍, 설계안 작성 등을 거쳐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자전거 도로 만들기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마포구청이 추진하는 보행공간계획과의 연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행정의 적극적인 의지는 동네의 변화에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⁶⁶⁾

■ 시사점

공간환경에 대한 문제제기, 변화에의 의지, 대안 모색이 모두 주민들의 경험으로부터 도출

참고자료 및 관련단체

-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외 (2006), 『한평과 골목길, 그리고 마을만들기』
- 박소현(2006), “성미산마을 자투리 공간 프로젝트”, 『가족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마을로』, 또 하나의 문화
- 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 홈페이지 www.mapocoop.org

66)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외, 『한평과 골목길, 그리고 마을만들기』 (2006), p.36.

■ 개요

- 위치 : 런던 북서쪽 South Kilburn 지역
- 사업성격 : 런던의 대표적인 주민참여 재개발 사업
- 사업기간 : 2006.1 계획허가 ~ 2008. 완공 예정
- 책임건축가 : Levitt Bernstein
- 주민참여조직 : GNHRSG 주민위원회
- 주민참여지원 : GLASS-HOUSE



그림 3.52 사우스 킬번 프로젝트 모델 2005



그림 3.53 공사가 진행 중인 주택



그림 3.54 레빗 번스타인의 투시도(GLASS-HOUSE)



Granville New Homes 사업은 GLASS-HOUSE의 지원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주민위원회는 도시재생사업의 중심에 있었으며 Brent 의회는 각각의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주민 위원회는 지역공동체와 함께 모든 재건 과정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과 사업자선택 등을 설명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향후 지역에서 일어날 사업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문사항 및 견해에 답변하는 전문가 역할도 이행하였다. Granville 에서의 주민 참여는 주민대표조직(GNHRSG), 전문가가 포함된 주민참여 전문지원조직 (GLASS-HOUSE), 행정(Brent 의회) 부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지원조직에 의한 교육 훈련에 의해서 주민의식과 역량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이는 이후 디자인 선정 과정과 향후 유지·관리 과정에서 주민이 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반이 되었다.

■ 시사점

지역주민이 발의·계획·시공·유지 및 관리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실현

참고자료 및 관련단체

- GLASS-HOUSE 홈페이지
www.theglasshouse.org.uk

7) 다양한 주체의 협력

대부분의 공간환경에는 복잡한 문제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주민참여나 전문가의 개입은 형식적이거나 전체 사업 과정 중 일부 단계에서만 이루어질 뿐이다. 공간환경 디자인의 실천을 위해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주체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역할 배분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노원구청 공무원들의 아주 특별한 제안

— 공무원과 시민들이 함께 바꾸는 세상



그림 3.55 희망제작소는 사회를 바꾸기 위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현화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노원구청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보다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해왔다. 그리고 민관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공동포럼이라는 형식으로 구현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희망제작소)

실천방안 #7.

- 공간환경은 그 본질 상 다양한 주체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되므로, **다원성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 공간환경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설계기획위원회, 시범사업추진위원회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통의 의견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지속적인 협의체**를 조직해야 한다.
- **유지 및 관리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공간환경 관련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장소의 가치향상

부분보다 전체

발상의 전환

통합적 · 총체적 접근

적절한 전문가 활용

적극적인 주민참여

●다양한 주체의 협력

점진적 사업 추진

지속적 관심

기획
및
구상

실행

유지
관리

■ 개요

- 대 상 지 : 노유1동 1-2번지 일대, 일명 “노유로데오거리”
- 사업성격 : 주민참여에 의한 기성시가지 환경정비형 개선사업
- 사업내용 : 전선 지중화, 간판개선, 일방통행 전환, 보차구분
- 참여주체 : 서울시장개발연구원, 광진구청 도시관리국, 도시연대, 노유거리가꾸기 추진위원회
- 사업기간 : 2000. ~ 2002.
- 소요예산 : 18억원



그림 3.56 노유거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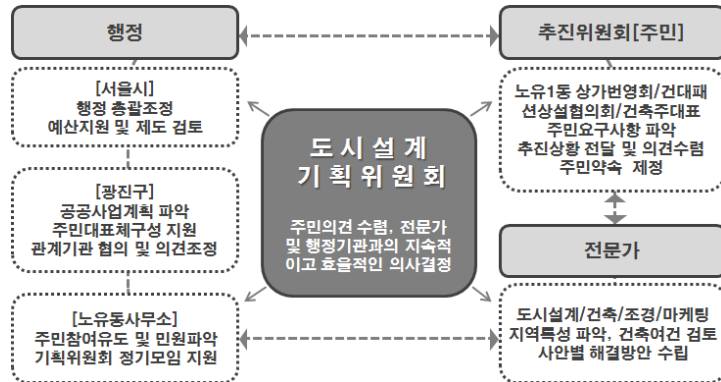


그림 3.57 노유거리 가꾸기 도시설계 기획위원회 구성

서울시는 기존의 관주도형 도시설계 관행에서 벗어나 행정과 주민의 발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종합적인 가로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시범거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우선 상인들의 의견 통로 역할을 수행할 ‘노유거리가꾸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30여 차례의 회의가 이어졌다. 그리고 상인, 행정, 전문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구로서 도시설계기획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광진구에서는 대상지 관련 민원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계기관(한전, 경찰서 등)과의 의견 조정 역할을 맡았으며, 서울시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수립에 따른 총괄업무와 자치구 및 전문가가 요청한 조례 등에 관한 제도적 여건 검토와 공공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담당하였다.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상인들이 주민 약속을 제정하여 사업의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시사점

주민참여를 통한 환경개선사업, 공간의 계획 및 관리에 있어서 주민의 역할 확보

참고자료 및 관련단체

- 서울특별시(2001), 『기성상업지 환경개선 도시설계-주민과 함께 하는 거리 가꾸기』
- 서울시장개발연구원(1998),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설계기법』

사례14

부산 광복로

■ 개요

- 대 상 지 : 부산시 중구 광복로 및 PIFF 광장
- 사업기간 : 2005. 1. ~ 2008. 2.
- 사업주체 : 문화관광부, 부산광역시, 중구
- 소요예산 : 87억원
- 사업내용 : 간판정비, 건물파사드 보수, 가로시설물 개선 등



그림 3.58 광복로 가로정비 전후(부산시 중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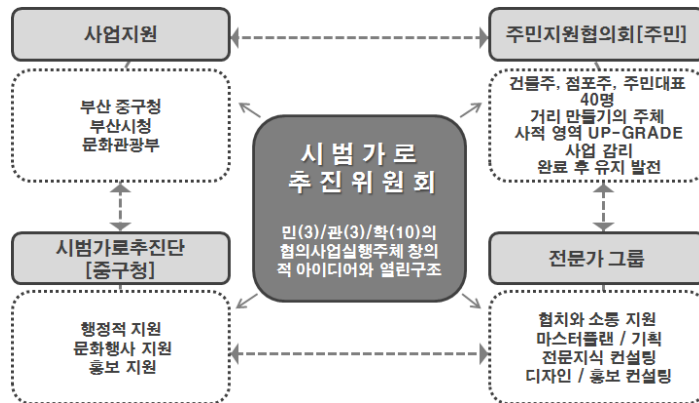


그림 3.59 광복로 시범가로 추진위원회 구성

부산 광복로 시범가로사업은 광복로가 가진 지역성과 역사성을 살리면서 문화적인 가로로 회복하고 동시에 경제적인 활력을 재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광복로 프로젝트는 지금까지의 관 주도형의 가로정비사업과 달리 행정과 전문가 그리고 주민이 함께 만드는 사업 프로세스를 도입하였다. 주요 의사결정은 민·관·학 합동의 시범가로추진위원회에서 이루어졌고, 단체장의 요구나 지시로부터 자유로운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었다. 주민투표를 통해 설계를 선정했고 디자이너와 주민이 함께 간판 디자인을 다듬었다. 또한 세 개의 관련 행정기관(중구, 부산시, 문화관광부)이 추진위원회를 믿고 맡겨주었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개념과 방향을 유지할 수 있었다.

■ 시사점

관 주도형 가로정비사업이 아닌 행정-전문가-주민이 함께 만드는 사업 프로세스의 적극 도입

참고자료 및 관련단체

- 부산시 중구(2008), 『광복로 시범 가로조성사업 백서』
- 부산시 중구 홈페이지
www.bsjunggu.go.kr

8) 점진적 사업 추진

기획 및 구상	장소의 가치향상
	부분보다 전체
	발상의 전환
실행	통합적 · 총체적 접근
	적절한 전문가 활용
	적극적인 주민참여
	다양한 주체의 협력
	●점진적 사업 추진
유지관리	지속적 관심

우리는 언제나 완성된 결과물만을 놓고 사업의 성패를 따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멋진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주체들 간의 갈등을 제대로 해소하지 않았거나, 시간에 쫓겨 더 나은 대안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면 금방 빛을 잃고 말 것이다. 공간환경을 만들어 가는 그 과정 자체도 우리가 디자인해야 하는 중요한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림 3.60 공공미술연구소 ‘프로젝트 쏘’의 마산 부림시장 프로젝트. 쏘는 작가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보기 좋은 미술작품이 아니라, 작업이 다소 느리게 진행되더라도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해를 찾아가는 과정으로서의 공공미술을 지향한다.

실천방안 #8.

- 소규모 공간에 대한 개선으로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사업 시행 시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후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사업 추진에 의한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
- 예산이 부족한 경우, 짧은 시간에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후 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 이 경우, 건축기본법 제22조에서 언급된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사례15

광주 푸른길공원

■ 개요

- 위치 : 광주-여수선의 광주도심부 통과구간(광주역-효천역) 폐선 부지
- 규모 : 길이 7.9km, 면적 11만3172㎡, 폭 10~25m
- 사업기간 : 2003. ~ 현재
- 총사업비 : 198억원
- 참여주체 : 광주시, 푸른길가꾸기 운동본부
- 사업내용 : 폐선부지를 따라 긴 선형의 도시숲길을 조성하고 곳곳에 벤치, 소형광장 등 설치



그림 3.61 광주 푸른길(조동범, 2007; 경향신문)

광주 도심부를 관통하는 철도의 이설은 광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수십 년 동안 숙원 해온 일이었다. 1990년 드디어 철도 이설이 결정되자 폐선부지를 두고 시에서는 경전철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폐선부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여론이 높아져갔고 2000년 푸른길공원 조성이 최종 결정되었다. 공사과정은 행정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고 있지만 설계과정에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일부 구간은 시민헌수에 의한 식재와 모금을 통한 기념정원 등의 독립적인 시민 참여숲으로 조성되기도 했다. 이로써 주민들을 소음과 진동, 사고의 위험에 시달리게 하고, 도시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던 과거의 도심철도는 산책을 즐기거나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작은 공연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 시사점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현장조사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민이 원하는 공원 조성을 위해 노력

참고자료 및 관련단체

- 조동범(2007), 『푸른길과 옛 기차길 동네』, 나무도시
- 임낙평 외(2006), 『제3회 지역혁신박람회-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컨퍼런스 세션II』
- 푸른길가꾸기 운동본부 홈페이지 www.greenways.or.kr

사례16

영월군 간판문화 개선을 위한 시범건물 조성 사업

■ 개요

- 대상지 :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중앙로 일원
- 사업기간 : 2007. 8. ~ 2008. 6.
- 사업예산 : 11억원
- 사업내용 : 200여개 점포를 대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시범건물을 공모·선정하여 건물 외관과 간판을 개선한 후 그 결과물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



그림 3.62 간판 정비를 위한 그리드 계획(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계획하는 방법)



그림 3.63 간판 정비 모습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행정 또는 전문가 주도에 의한 방식과 획일적인 간판 디자인은 늘 문제로 지적되어왔고 업주들의 만족도 또한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영월군은 모델하우스격인 특정 건물을 선정하여 간판정비를 한 후 이에 대한 해당 주민들이나 인근 업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토론했던 결과를 향후 전체 간판개선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시범건물 사업을 진행하였다. 또 노후 정도에 따라 교체 여부를 결정하며, 꼭 필요하거나 원하는 업소에 대해서만 바뀔게 하고 있다. 영월군은 업종마다의 특성을 고려한 간판을 제작하기 위해 200개 업소를 업종별로 분류하고 대상지 점포주들의 의사를 파악한 후 각 건물의 노후정도에 따른 정비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시사점

지역적 특성과 전체 공간환경의 조화를 고려한 디자인 도출을 위해 시범 사업을 통해 의견 수렴 및 토론 유도

참고자료 및 관련단체

- 영월군(2008), 『이야기가 있어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 영월군(2008), 『영월군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경관 마스터플랜』

9) 지속적 관심

공간환경디자인 성공의 80%는 그것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계속되는가에 달려 있다. 아무리 좋은 디자인도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진정한 장소가 될 수 없다. 좋은 관리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성을 가져야 하며, 공간환경의 유형뿐만 아니라, 도시나 지역이나에 따라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3.64 대구 신천 무태교 주변 생태공원. 삼덕동에서 10여년 동안 마을만들기를 이끌고 있는 대구 YMCA 주도로 신천변을 생태공원화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에 대한 조성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대구에스파스' 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이 설립되었다.

실천방안 #9.

- 공간환경은 하나의 예술품처럼 한 번의 사업으로 끝나는 완성품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자라나는 유기적 생명체이므로 **사업 성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조례나 주민협약 등을 통해 공간환경 이용자와 관리자 사이의 약속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사회적 기업을 통해 공간환경디자인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상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기업 육성에 힘써야 한다.**

장소의 가치향상

부분보다 전체

발상의 전환

통합적 · 총체적 접근

적절한 전문가 활용

적극적인 주민참여

다양한 주체의 협력

점진적 사업 추진

●지속적 관심

기획
및
구상실
행유
지
관
리

■ 개요

- 위치: 대구시 중구 삼덕동 일대
- 기간: 1997. ~ 현재
- 주체: YMCA, 주민, 전문가(건축가, 예술가)
- 주요사업 : 하드웨어측면(담장허물기, 골목공원, 마을미술관, 마을국악원), 소프트웨어측면(꾸러기 그림대회, 골목영화제, 인형극, 마임축제)



그림 3.65 신천생태공원 조성 지역



그림 3.66 담장 허물기에 의한 골목공원 조성



그림 3.67 폐한옥을 개조한 마을 국악원



그림 3.68 담장 벽화

대도시 중심의 YMCA 활동에 자성 움직임이 일면서 '작은 YMCA' 를 지향하는 시도가 있었으며, 이에 대구 YMCA 김경민(현 사무총장 대행)씨는 삼덕동으로 이사하여 자신의 집 담장을 직접 허물고 골목공원 조성하였다. 이후 YMCA는 삼덕초등학교 교장 관사를 마을 미술관으로, 인접 한옥을 마을 국악원으로 개조하는 등 커뮤니티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담장 벽화, 문패달기 등 마을환경 개선 사업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삼덕초등학교 담장을 허물어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하였으며, 현재 학교 개축과 함께 대규모의 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이다.

■ 시사점

지역의 시민단체가 커뮤니티의 중심점이 되어 오랜 시간 참여 관찰을 통해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지속적인 관계 유지, 주민의 의식과 참여도 향상

참고자료 및 관련단체

-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9), 『마을 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 (I)-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례연구』, pp.45~52.
- cafe.naver.com/samduckdong

사례18

동경 마루노우치 나카도리

■ 개요

- 사업기간 : 1998. ~ 현재(3차에 걸쳐 단계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2차 사업 진행 중)
- 사업범위 : 폭 21m(보도 9m, 차도 6m), 길이 1,100m의 나카도리 가로공간, 나카도리에 면한 26개의 건물
- 사업참여주체 : 동경도, 미츠비시 지소(주), 재개발 추진협의회 등
- 사업추진내용
 - 공적영역: 보도 폭 확충, 일반통행 전환, 보도와 도로의 일체적인 포장, 벤치/가로수/조형물/가드레일/안내 시설물 등의 통합 정비
 - 민간영역: 기존 건물의 외관을 투과성 높고 개방된 공간으로 리모델링, 재건축된 건물은 기존 나카도리의 31m 처마선을 유지, 1층부 외관을 개방감있게 정비



그림 3.69 마루노우치 나카도리 모습

나카도리
밀레나리오

각종 이벤트 행사

소식지 발행

지역주차장
네트워크

순환버스 운행

벨로택시 운영

그림 3.70 공간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활동

마루노우치 나카도리는 일본 최초의 업무지구로 지난 100년간 상징적인 비즈니스 가로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1990년대에 거품경제가 무너지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지역 재정비가 추진되게 이르렀다. 공공과 민간의 통합적이고 일체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민관 협력조직인 '마치즈쿠리 간담회'를 설립하고 민간과 공공의 합의와 조정을 통해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 도시환경의 질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즉, 지구의 유지관리와 이벤트 개최, 문화 활동 유지 등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리조직인 지역매니지먼트 협회를 발족하였다. 동경도는 '동경의 세련된 가로경관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여 자주적인 수익 확보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매니지먼트협회는 안정된 재원확보 구조 속에서 공개공지 활용을 통한 오픈 카페 등 수익사업도 가능하게 되었다.

■ 시사점

사업 이후 전담조직의 설립을 통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활동 및 행정의 제도적 지원

참고자료 및 관련단체

- 마루노우치 홈페이지
www.marunouchi.com
- 이상민 외(2008), 『도시 공공공간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개념정립 및 현황조사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IV.

결론 및 향후 과제

(a u r i

결론 및 향후 과제

이 연구는 품격있고 지속가능한 건축·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간환경디자인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에게 공간환경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출발하였다. 따라서 공간환경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검토하고 공간환경디자인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국내외 관련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추후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나 지자체 공무원이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공간환경디자인의 기초자료를 만들고자 한다.

‘공간환경’과 ‘디자인’이란 단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공간환경디자인은 곧 ‘좋은 공간환경 만들기’이다. 좋은 공간환경이란 ‘열린 접근성과 자연스러운 연계’, ‘안전성과 편안함’, ‘다양한 이용과 유연한 프로그램’, ‘정체성있는 이미지’,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킨 총체적인 장소를 의미한다.

공간환경디자인의 적용대상은 건축기본법에 기초하여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 공공공간, 경관을 포함한다. 먼저 공간구조는 대지와 건축물이 만들어내는 관계를 의미하며, 공간환경디자인은 이러한 공간구조를 새로 구축하는 것 뿐 아니라 이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비롯하여 공간구조를 이루는 개별 요소들 사이의 공간까지 모두 적용대상으로 포함한다. 공공공간 또한 공간환경디자인의 대상으로, 도시의 주요한 공공공간인 가로·공원·광장 등은 물론이고 도시 경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도시하부구조물과 공간환경의 질을 결정하는 디테일과 재료라는 측면까지도 공간환경디자인의 적용범위 안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경관은 앞서 언급한 여러 요소들의 총합으로서 공간구조, 공공공간 등이 만들어내는 총체적 환경이며, 그 대상 범위에 따라 크게 시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도시 경관과 역사·문화적 가치

가 있거나 도시개발사업의 대상지 등과 같은 특정한 지역의 경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간환경디자인은 이러한 적용대상에 대해 디자인하는 행위보다는 좋은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접근방식과 그 가치에 더 중점을 둔다. 결국 공간환경 디자인이란 건축물, 가로, 공원, 시설물 등 개별 대상물의 질적 향상이 아니라 이러한 대상물들이 어우러진 총체적인 장소를 좋은 공간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를 만드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다양한 주체가 유기적으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협력적 디자인(collaborative design),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등을 총체적으로 인식하여 장소를 만들기 위한 통합적 디자인(holistic design), 삶의 토대로서 생활공간을 만드는 프로세스 디자인(process design)을 공간환경디자인의 핵심적인 내용이자 기본목표로 설정하였다.

실제 우리나라 공간환경디자인의 현실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과 원인을 계획이나 사업의 기획 및 구상단계, 사업의 실행단계, 유지관리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열악한 공간환경 디자인의 원인들을 개선하기 위해 공간환경디자인의 실천방향으로서 장소의 가치 향상, 부분보다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 발상의 전환,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접근, 적절한 전문가의 활용,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다양한 주체의 협력관계 중시, 점진적 사업 추진, 지속적인 관심 등 9가지로 정리하였다.

이것은 공간환경디자인을 협력적 디자인, 프로세스 디자인, 통합적 디자인으로서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으로 작용해야 하며,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관련 실무자들이 공간환경 관련 사업을 계획하거나 진행할 경우에 반드시 기억해두어야 할 기본이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토대로 공간환경디자인에 관한 논의들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 연구는 공간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초 연구로, 공간환경디자인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 인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논의가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지적한 우리 공간환경디자인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간환경의 조성 과정 속에서 협력적 디자인, 통합적 디자인, 프로세스 디자인으로서의 공간환경디자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제시한 9가지 실천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현방법을 모색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좋은 공간환경디자인은 다양한 관련 주체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의해 실현

된다. 이러한 의사결정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간환경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각 주체들의 역량 또한 현재보다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좋은 공간환경 또는 공간환경디자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나 홍보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공간환경디자인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공간환경을 만드는 관련 지자체나 전문가, 일반인들이 쉽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와 같은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 참고문헌

· summary

· 부록

영주시 공간환경디자인 관련 공무원 의견 조사

(a u r i

참고문헌

국내문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8, 『지속가능한 공간환경디자인 토론회 자료집』.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8, 『국토환경 디자인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견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외, 2006, 『한평과 골목길, 그리고 마을만들기』.
- 견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2004, 『한평공원 만들기』.
- 고정희 외, 2007, 『텍스트로 만나는 조경』, 나무도시.
- 공공작업소심심; 전주청소년문화예술교육단, 2007, 『하늘정원 만들기』.
- 김광현, 2008, “건축기본법과 공간환경디자인”, 『지속가능한 공간환경디자인 토론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1-18.
- 김기호; 문국현, 2006, 『도시의 생명력 그린웨이』, 랜덤하우스.
- 김도년 외, 2006, 『주민과 함께 도시경관 만들기』, 문화관광부.
- 김도년 외, 2008, 『기업과 함께하는 가로경관과 도시문화 향상을 위한 건물 전면공간 활용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 김민수, 1997, 『21세기 디자인 문화 탐사』, 솔출판사.
- 김세용, 1997, 『도시공공공간의 쾌적도의 정량적 분석 방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희 외, 2007, 『주민참여를 통한 한평공원 만들기』, 건설교통부.

- 김정후, 2007, “케이브와 21세기 영국 공공공간 정책의 시사점”, 『월간 국토』 V.320, pp.104-116.
- 김주영, 2008, “지역 공공건축 통합관리를 위하여-영주시를 중심으로”, 『제6차 공공건축 설계포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김진욱 2006, 『도시건축시스템에 의한 설계방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6,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국내외 사례연구』,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 민범식 외, 2007, 『살고싶은 도시만들기(Ⅱ):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국토연구원.
- 박재길 외, 2005,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추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박찬숙 외, 2007, 『유럽의 도시, 공공디자인을 읽다』, 가인디자인그룹.
- 박찬숙 외, 2007, 『일본경제, 공공디자인으로 다시 살아나다』, 가인디자인그룹.
- 부산시 중구, 2008, 『광복로 시범가로조성사업 백서』.
- 서수정 외, 2008, 『공공건축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서수정 외, 2008, 『신도시 공간환경디자인 업무 매뉴얼작성 및 운영방안 수립 연구』, 한국토지공사.
- 서울그린트러스트, 2006,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원문화』.

- 서울그린트러스트, 2008, 『2007 우리동네숲 리포트』.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기성상업지 환경개선 도시설계』,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2008, 『디자인서울교육자료』.
- 서울특별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2008.09,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공청회』.
- 서울특별시 주택국, 2006, 『서울도시디자인 기본계획』.
- 서울특별시, 2001, 『북촌가꾸기 기본계획』.
- 서천군, 2007, 『봄의 마을 만들기』.
- 손종우; 김광현, 1999, "공공 공간의 도시적 의미작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V.19(2), pp.433-438.
- 오민근, 2008, "공공디자인과 지역 문화 환경 형성", 『김해시 공공디자인 포럼』.
- 온영태 외, 2007, 『도시설계 전략으로서의 도시경관계획』, 한국도시설계학회.
- 온영태, 2008, "공공디자인과 지속가능한 공간환경만들기", 『건축과 사회』 V.11.
- 윤종영 외, 2005,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 이상민 외, 2008, 『도시 공공공간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개념정립 및 현황조사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이석정; 차주영, 2000, "에쓰링엔시 중앙역 상점거리 디자인", 『도시설계』 V.1, pp.98-108.

- 이영웅, 1995, “공적공간의 개념과 정비 방향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V.30(5), pp.5-26.
- 이은비, 1998, 『도시건축공간을 통한 도시건축 공공성 확보 방안』,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정형; 김진욱, 2007, “가로블록 구성방식에 따른 가로공간의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V.21(8), pp.177-186.
- 이종수 외, 2006, 『‘살기좋은 지역’ 및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개념정립 연구』, 균형발전지원본부.
- 이희정 외, 2008, “디자인과 도시 경쟁력”, 『도시정보』 N.312(3), pp.3-15.
- 임낙평 외, 2006, 『제3회 지역혁신박람회-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컨퍼런스 세션Ⅱ』.
- 정기용, 2007, “공공건축과 건축가의 역할”, 『제1차 공공건축설계포럼』.
- 정석 외, 1999,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례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정석, 1994, 『건축 외부공간의 공공성분석을 통한 협력형 도시공간설계 접근방안: 서울시 고층 오피스빌딩의 공개공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석, 2007, “한국 도시공간의 디자인 실태와 개선방향”, 『월간국토』 V.309, pp.27-38.
- 조동범, 2007, 『푸른길과 옛 기차길 동네』, 나무도시.
- 조준배 외, 2008, 『장소의 가치향상을 위한 공공건축 통합화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

구소.

진영환 외, 2007,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례편』, 국토연구원.

최윤경, 2003, 『7개의 키워드로 읽는 사회와 건축공간』, 시공문화사.

한국도시설계학회, 2005, 『지구단위계획의 이해』.

한국디자인진흥원, 2006, 『지자체 디자인행정 매뉴얼-디자인 행정조직 구축을 중심으로』.

황기원 외, 2006, 『공공디자인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문화관광부.

해외문헌

AIA, 2001, 『Communities by Design』.

AIA, 2005, 『How Architects Can Become Advocates for Livable Communities』.

AIA, 2005, 『What Makes a Community Livable? Livability 101』.

Annie Boyer, 2001, 『Aménager les Espaces Publics』, Le Moniteur.

Ariella Masboungi, 2002, 『French Urban Strategies』, Le Moniteur.

Ariella Masboungi, 2005, 『Régénérer les Grands Ensembles』, Edition de la Villette.

Atelier Parisien d'Urbanism, 2002, 『Charte D'aménagement des Espaces Civilisés』.

- CABE, 2000, 『By Design: Urban Design in the Planning System』 .
- CABE, 2003, 『Make Space』 .
- CABE, 2003, 『New Localisms and Community Engagement: What It Means for Public Space Quality』 .
- CABE, 2003, 『Parks and Squares: Who Cares?』 .
- CABE, 2004, 『Manifesto for Better Public Spaces』 .
- CABE, 2004, 『The Value of Public Space』 .
- CABE, 2005, 『Making Design Policy Work』 .
- CABE, 2006, 『The Cost of Bad Design』
- CABE, 2006, 『The Value Handbook』 .
- CABE, 2007, 『It's Our Space: a Guide for Community Groups Working to Improve Public Space』 .
- DREIF/DIT, 2002, 『Elaborer un Plan Local de Déplacements』 , Codra.
- English Partnership & The Housing Corporation, 2000, 『Urban Design Compendium』 .
- J. Lang, 1994, 『Urban Design』 , V. N. R.
- Jan Gehl, 2001, 『Life Between Buildings』 , The Danish Architectural Press

- Jan Gehl; Lars Gemzoe, 2000, 『New City Space』, The Danish Architectural Press.
- Jane Jacobs, 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Modern Library.
- Jean Pierre Charbonneau, 2007.01, 『 ‘예술과 공공공간’ 을 주제로 한 토론 중에서』, Paris La Sorbonne,
- Jerold S. Kayden, 2000,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The New York City Experience』, John Wiley & Sons.
- John Morris Dixon, 1999, 『Urban Spaces』, Visual Reference Publication INC.
- Kristine F. Miller, 2007, 『Designs on Public』,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Lyoncapitale, 2002, 『Lyon, Ville Lumière』, Lyon Capitale.
- Marcus, C.C., and Francis, C. eds, 1998, 『People Places; Design Guidelines for Urban Open Space』, Van Nostrand Reinhold.
- New London Architecture, 2005, 『Civilizing Space』.
- Paris Projet, 1993, 『Espaces Publics』 V.30/31.
- Paris Projet, 1998, 『Quartiers Anciens Approches Nouvelles』 V.32/33.
- Paris Projet, 2005, 『Renouvellement Urbain Et Jeux Olympiques』 V.36/37.
- Paul Gedye, 2004, 『Vancouver's New Neighborhoods: Achievements in Planning

- and Urban Design』, City of Vancouver.
- PPS, 2000, 『How to Turn a Place Around』.
- PPS, 2000, 『Placemaking With Project for Public Spaces』.
- Ray Huchison, 2000, 『Constructions of Urban Space』, Jai Press INC.
- Rem Koolhaas; Bruce Mau, 1995, 『S, M, L, XL』, Monacelli Press.
- Rob Krier, 1980, 『Urban Space』, Academy Editions, London.
- Roger Narbonu, 1997, 『La Lumière Urbaine』, Le Monteur.
- Scottish Executive Development Department, 2001, 『Designing Places』.
- Scottish Executive Development Department, 2003, 『Planning Advice Note: Design Statements』.
- SEMAEST & Jean-Pierre Buffi, 『Développement du Plan d'Aménagement de Zone de Bercy』.
- SEMAPA, 1999, 『Cahier des Charges Particulière d'Urbanisme et d'Architecture Secteur Masséna』.
- Simon Texier, 2006, 『Voies Publiques』, Picard.
- Stephen Carr, 1993, 『Public Spa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2007, 『Achieving Great Federal Public

Spaces: A Property Manager's Guide』.

Urban Task Force, 1999, 『Towards an Urban Renaissance』.

웹사이트

cafe.naver.com/samduckdong

http://en.wikipedia.org/wiki/Built_environment

www.apur.org

www.bsjunggu.go.kr

www.cabe.org.uk

www.daragwon.com

www.dosi.or.kr

www.greenways.or.kr

www.iau-idf.fr

www.lyon.fr

www.mapocoop.org

www.marunouchi.com

www.paris.fr

www.pioneercourthousesquare.org

www.plainecommune.fr

www.pps.org

www.pref.kumamoto.jp

www.publicdesign.go.kr

www.seattleartmuseum.org

www.simsim.or.kr

www.theglasshouse.org.uk

www.urban.cccb.org

www.urbanlyon.org

www.vancouver.ca

www.zaanstad.nl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Design for Better Built Environment

Lee, Sang Min
Ko, Eun Jeong
Lim, Yoo Kyoung

This study intends to establish the concept and scope of ‘design for better built environment’ in order to create a decent and sustainable architectural and urban environment. In addition, the study pursues to raise the awareness of design for better built environment among experts and civil servants in related fields. To achieve this, the study reviews the understanding of and need for the design for better built environment, and provides directions to implementing the design for better environment based on domestic and foreign case studies.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used as reference materials for establishing policies and implementing projects involving built environment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Design for better built environment’ is a coined term by combining ‘built environment’ and ‘design,’ and defined as creating a ‘good built environment’. A ‘good built environment’ refers to a whole spatial environment satisfying the following requirements; Access & Linkage, Safe & Comfort, Identity & Image, Use & Activities and Ownership & Management.

Design for better built environment can be applied to a spatial structure comprising buildings, public spaces and landscape. Here, spatial structure refer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land and buildings. In this sense, design for better built environment comprises the entire behaviors of preserving and using the spatial structure, and

furthermore, the space between individual elements comprising the spatial structure, as well as formulation of a new spatial structure. The concept of ‘design for better built environment’ can be applied to the public space defined pursuant to the Framework Act on Architecture as a space including streets, parks and squares, and the public facilities within the space. The concept can be also applied to urban infrastructure which significantly affects the formulation of urban landscape, and details and materials which serve as criteria for the quality of a built environment.

Lastly, landscape is the combination of all the elements previously mentioned, the whole environment created by the spatial structure and public spaces. According to the scope of the target area, urban landscape can be categorized into a general landscape for the entire city and the landscape of a specific area including historically and culturally valued districts and sites for urban development.

Design for better built environment puts more emphasis on the approach to the establishment of a ‘good built environment’ and the value rather than designing of the target space. In other words, design for better built environment pursues a fundamental change in the way of formulating a city so as to transform the entire city comprising all these objects into a ‘good’ built environment, rather than improving the quality of individual buildings, streets, parks and facilities.

Therefore, the prerequisites and crucial features of design for better built environment include collaborative design to allow for close relationship between diverse experts and actors concerned, holistic design to generate a place by considering space with buildings, public spaces and public facilities on the whole, and process design which creates a space for living, or a foundation for life.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our poor built environment and the causes, and presents directions to implementing design for better built environment as follows:

- 1) Enhance the value of a site
- 2) See as a whole
- 3) Imagine regeneration of deserted spaces
- 4) Design with a holistic approach
- 5) Call for experts
- 6) Assure participation of residents
- 7) Collaborate with all stakeholders
- 8) Promote projects phase by phase

9) Set up a high-quality management and maintenance regime

These elements can be used as basic principles for planning or conducting built environment projects by local governments. These nine elements are basic ideologies to realize design for better built environment as a collaborative design, holistic design and process design as well. Finally, follow-up studies are required to further discuss and develop specific methods to implement design for better built environment.

Keyword: the built environment, design for better built environment

부록

영주시 공간환경디자인 관련 공무원 의견 조사

1. 공무원 교육 및 의견조사

- 대상 : 영주시 공무원(건축, 도시계획 및 정비, 공원녹지, 토목, 공공디자인 등 공간환경 관련 부서 공무원 10인)
- 일시 및 장소: 2008년 10월 15일, 오후 2시30분~4시, 영주시청
- 목적 : 관련 공무원 대상으로 본 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한 교육자료를 작성하여 시범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공무원 의견을 조사하여 연구의 진행 및 향후 교육자료 작성에 반영하고자 함
- 조사 내용 : 교육내용에 대한 의견, 영주시 공간환경의 문제, 공간환경 업무 진행시 애로사항, 지자체 공간환경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요구사항 등

2. 의견조사 결과

□ 교육자료에 대한 평가 및 기타 의견

- 각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과 유사 교육에의 참가 경험 여부에 따라 공간환경디자인에 대한 이해정도의 차가 매우 크므로 단계별 로 교육내용에 차별을 교육 내용에 차별을 두어야 함
- 발표자료(이미지 위주)와 배포자료(텍스트 포함)의 구분이 필요
- bad design 사례, 각 부서와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사례 제시

□ 영주시 공간환경의 문제점

- 시가지 중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로 인해 도시 공간 단절
-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
- 보행공간 및 녹지공간 부족
- 공간환경에 대한 마스터플랜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부재
- 유기적인 협의체계 부족

□ 공간환경 업무 진행 시의 어려움

- 예산관련 :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한 사업 예산 확보 문제, 사업추진 시기 제한

- 인력관련 : 공간환경디자인 관련 전문가 부족, 연구소 등 외부 전문가 활용기회 부족
- 법제도관련 : 공간환경에 관한 법이 많아 혼란, 중앙부처 사업의 중복
- 타부서와의 관계 : 중앙부처별로 추진되는 사업에 따라 지자체 담당 부서도 분리되어 협의가 어려움

□ 공간환경 업무 시 중요한 고려사항

- 기본계획 수립, 예산, 인력 확보
-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추진
- 자치단체장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는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공간환경디자인

□ 공간환경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바라는 점

- 각종 사업의 추진 주체가 중앙부처(국토부, 행안부, 문광부 등), 지자체 등 각각 달라 업무가 연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통합이 필요함
- 관련법의 통합
- 충분한 사업비 지원
- 전문가 양성 및 교육

『공간환경디자인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공무원 대상 설문지

2008. 10. 15.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발표내용에 관한 문항

1. 발표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적어주십시오.
2. 발표 내용 가운데 특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 ‘공간환경디자인을 위한 10가지 원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발표 내용에 추가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5. 좋은 공간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향후 이와 같은 설명 자료를 발간하려합니다. 어떠한 내용이 더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 공간환경관련 업무진행에 관한 문항

6. 귀하의 주된 업무는 무엇입니까?
7. 현재 영주시 공간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 공간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시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예산관련 :

-인력관련 :

-법제도관련:

-타부서와의 관계관련:

-기타:

9. 공간환경 관련 업무(사업) 진행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 공간환경 관련 정책 수립이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 중앙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